朝鮮日報
夕刊
九日(月)
本紙朝夕刊十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發行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本會議開會劈頭 英、新條約提案?

質的制限에 英米意見一致

軍縮會議前途暗影

【倫敦八日發電通】確聞에 依하면 볼드윈英首相은 海軍軍縮會議開會演說에서 一般的海軍軍縮條約成立에對한 熱望을 披瀝하는同時에 不成立의 境遇를 念慮하야 無制限인 潛水艦戰을防止할 新條約은 日英米佛伊五個國間에 締結코저하는 提案을會議의 劈頭에發表하기로 決定하얏다고하는바 右提案은 一九三〇年倫敦海軍條約의第四編 第二十二條(即商船에對한 潛水艦의 行動은 水上艦船이 遵守할 國際法의 規則에 準據할것이라고規定한事項)를 單獨으로 摘出하야 今後獨立의 國際條約으로하고저 하는것이다 英首相은右提案을 이미 佛伊兩國代表에內示하야 그同意를 得하얏슴으로會議開會演說에서 右提案을 發表함에際하야는 그事實도 附言하야特히 日米兩國間의 同意를 要望할것으로 推測된다 그리고 米國側이 이에 即時原則的同意를與함에 큰 困難이 업슬것이라고 推測됨으로 日本의 態度가이條約의 成立을 決定하는열쇠라고 指目되여 至大한 注目을 밧게되엿다

【倫敦八日發電通】日本의 軍縮原則인 軍備平等權要求에 對하야 英米特히 米國은 絶對反對로서 九日부터 會議에 臨하는것이 判明되엿다 特히最近北中情勢가 英米를 一層硬化식혓다고 解釋하는 側이잇고 따라 英國은 이미 量的制限의 成功에 可能性을斷念하고 質的制限에主力을 傾倒하는形勢가 窺視되는데 量的制限을伴하지안흔 質的制限은 建艦競爭이 이러날境遇에 國力이크고 資源工業力이큰 英米에는 有利하나 그러치못한國家에對하여는 甚히 不利함으로 日本側으로서는 量的制限업는 質的制限에는 絶對로 反對하야 質量相關主義를 固執할 方針이다 如上의情勢에잇서 英米佛은 軍

海軍에進出하여잇고 他國 艦隊의再集中、伊에 紛爭을 中心으로한地中海 스에즈運河、紅海方面의 形勢等 國際情勢은 到底히 바랄수업고 軍縮會議를 中心으로한 空氣는 겨울의 倫敦上空 그대로로 陰鬱한 狀態에잇다 (寫眞은 英首相)

伊橫暴한爆擊으로 石油斷交速行

【쥬네브七日發聯合】伊太利空軍이 에디오피아 南北戰線에 亘하야 爆擊을 敢行하야 非戰鬪員에게 莫大한 慘害를 與한것은 쥬네브空氣를 甚히 惡化케하야 急遽 石油斷交案을 斷行하야 伊太利軍의 行動을 制裁하지안흐면 안된다는 意見이 漸次有力化하게되엿다 制裁十八人委員會는 六日에 이르러 石油斷交에對하야 最後的 妥協을 逐하엿는데 刻下의 情勢로는 委員會는 全會一致로 最短期間內에 石油斷交의 措擧를 取할수 박게업다고 觀測된다

米國은 總噸數의 二割削減案提出

日本代表部反對意向

【華盛頓九日發聯合】米國全權團은 海軍縮少本會議劈頭 總噸數二割削減의 爆彈的提議를 持出할 方針이라고 解釋되는데 提案要旨는 左와如하다

一、米國政府는 軍事費의 直接輕減 軍備縮少의 原則에基하야 各國政府가保有한 海軍力을 二割削減하기를 提案함

一、各國政府는 華府、倫敦兩海軍條約에 規定된 保有海軍力을 基準으로 總噸數에잇서 二割削減을 斷行함이 可함

提案의 細目은 아직 判明되지안흐나 스완손海軍長官이 一九三四年八月 各種艦艇全般에亘하야 二割의 噸數引下를 斷行하려한다 艦艇增强計劃에對하야 二割까지 代替의 建造를 保留하드라도支障은업다」고 發言한 事實이잇는바 今回의 二割削減案은右 提案을 다시 具體化한 提案이라고 解釋되는데 二割削減案은 아마 現行比率의 維持를 前提로 日本代表部로서는 到底히 受諾할수업슬것이라고 解釋한다 (寫眞은 데비스米全權)

八面錄

◇ 軍縮會議開會劈頭에 潛水艦戰 阻止案을 提出한다지、秘密作戰에서 露出作戰으로 轉換인가。

◇ 一九三五年 十二月九日의 世界政局 天氣模樣은 如左—

◇ 各國艦隊代表한 主力艦이모힌英京倫敦은 晴雲濃霧가 자옥하고 風勢大作하야 波浪이 高하다。

◇ 伊太利半島가 들석들석할만치 怒發大發하는 英佛에서 石油緩和와 和協勸告風이 불기시작하야 日氣도 四溫에 드는모양。

◇ 『官許』自治로 『陽光』을 보앗다는 北中地方에는 建設과 救亂의 兩氣流가 相衝되야 半晴半雨 아즉도 氣壓配置가 不安定。

◇ 暴風을豫想하든 豫算 고개도 無事히 넘은 東京은 議會라는 바다에 岡田丸의 航行이 問題 解散의 波瀾은 豫定된 코ー스라니、여기도 風和日暖은 延期。

每年戰鬪機를 八百臺式新造

五年以內에三千臺擴張計畫

米陸軍長官年次報告

【華盛頓八日發電通】米國陸軍長官 덴氏는 九日公表될 今年度年次報告에서 如左히 陸軍擴張의 提案을 하게되엇다

一、每年八百機의 戰鬪機를 新造하고 五年以內에 陸軍空軍을 三千機에 大擴張할것

一、陸軍常備兵員數를 十六萬五千名에 增員할것

一、陸軍將校는 二千名增員하야 合計一萬四千名에 擴張할것

一、國民軍其他의 豫備軍을 擴充强化할것

英首相提案決意

潛水艦戰制限條約

日本代表部大緊張

【倫敦八日電通特派員發】倫敦五國海軍軍縮會議各國代表의開會式演說原稿는 이미八日中에 英國外務省會議事務局에 大部分届出되엿는데 이와同時에 日本、米國、佛國、伊太利等主要國의 演說原稿는 發表時刻豫約附로 各國通信社의 손에 送達되엿는데 主催國인 볼드윈首相의演說原稿만은 八日夜에 이르도록 아직內示되지못하엿다 그러나 그內容의重要部分에 對하여는 確實한側에서온入報에依하면 英首相이 一般軍縮條約의 成否와는 別個로 獨立으로 潛水艦戰制限條約을 締結하기爲하야 提案을 決意한 旨의 情報가 잇서서 日本代表部가 注目을 끄을게 되엿다 그리고 右提案은 日本側에對해서는 意外인 感이 잇슴으로 世界平和와 繁榮과를 目的으로하는 軍縮의 基礎的根本主張에關하야 正論을 다하야 討議를 行하기前에 다만 無條約的狀態를 處慮하고 末節에 念慮되는 文句가잇스면 日本側에서 斷乎히 會議를 軍縮의 本軌道로 옴길것을 主張할 必要가잇스리라고 觀測된다

三笠宮殿下

伊勢神宮御參拜

【宇治山田電話聯合】三笠宮崇仁親王殿下께압서는 宮家御創立、御成年式御奉告御參拜키爲하야 興東別當、土居事務官等을 거나리시고 八日午前九時九分 山田驛御着 富田三重縣知事、齊藤宇治山田市長其他官民多數의 御出迎을 受하시고 貴賓室에서 御少憩後一旦祭主官舍에 入하압시엇다가外宮 內宮에 御參拜御拜禮하압신後 御晝餐後午後一時 二十七分山田驛御發奈良에向하압시엇다

胡漢民氏

一月中旬香港에歸還

【香港八日發聯合】中央常務委員會主席에 任命된 西南派의巨頭胡漢民氏는 今年內에 마르세이유港을 發하야 明年一月中旬 香港에 到着하기로 決定한模樣이다

뭇솔리니首相

佛大使와會見

【羅馬七日發聯合】뭇솔리니首相은 七日英國大使와 繼續하야 佛國大使샹부랑氏와 會見하고 重要會談을 逐하얏다 뭇솔리니首相은 議會開院式에서의 演說要旨를 內示하고 다시 巴里에서의 뭇솔리니首相 호어外相의 會談에 關하야서도 懇談을 하얏다고 解釋된다

北中新政權은

高度自治政體

【北平八日發聯合】冀察政務委員會의 特徵은 外交人事를 中央으로부터 分離식힌點으로 이것은 滿洲事變以前의 東北政權及現在의 西南政權에도 볼수업는것으로 今次의 北中新政權이如何히 高度의 自治政體인가를말하는것이다

海軍軍縮會議와그前途

亞米利加垂涎의 太平洋上諸島嶼

(廿一) 雲崗生

그러면 米國은 戰備輕減의 代價으로 英佛兩國으로부터 兩國이 太平洋上에 所有한 島嶼의 讓渡를 밧되、어떠한 島嶼를 希望하느냐하면 이에 對한 米國의 希望은 亦是、前揭米國 陸海軍雜誌에 記載된 內容대로 紹介해 보면 如左하다。

『米國과 東洋과의 通商貿易은 益益、增加하야 이미 米國海外貿易의 四分之一에 達하야 太平洋에 잇서서의 米國의 地位는 더욱 重要해 진다。그런데 最近、滿洲及 上海에 잇서서의 事態의 進展은 米國의 極東通商과 太平洋에 잇서서의 一般的利益保護에 必要한 힘(註=海軍力)을 强케하지아니하면 안되게 되엿다。一旦有事之時에는 極東大市場에 至하는 米國海軍及 同商船의 安全航路가 가장 必要하게 되여잇는데、布哇로부터 西方二千哩마일의 間은 廣大한 마ー샬、카로린群島(註=日本의 南洋委任統治地)를 占據한 日本海軍때문에 極히 危險한 狀態에 노혀 잇다。따라서 米國으로서는 日本海軍의 危險界를 避하야 파나마로부터 極東에 達할수잇는 南方航路가 必要하다。이 南方航路의 飛石으로 第一着으로 利用할수 잇는 島嶼는 佛領말크사쓰諸島와 그西方에잇는 佛領쏘사이에티諸島로서 두 섬이 다 相當한 錨地를有한 價値잇는 섬이다。다시 그 西方으로부터 比律賓에 至하는 航路上에 橫在한 島嶼中에서 米國이 利用하기를 希望하는 島嶼는 良港을 有한 英領 솔로몬島다。

此等諸島는 米國에 對하야는 極히 價値가 大한데 反하야 英佛兩國에 對하야는 經濟的으로도 價値가 업고、軍事的으로도 他國海軍의 利用을 防止하는 以外에 別로 價値가 업는것이다。이 솔로몬島의 一部는 歐州大戰의 結果、日本이 마ー샬、카로린群島를 어든것과 가치 英國이 獨逸로부터 빼아슨것이다。米國은 平和會議에서 利他的態度에出하야 그分配에 參與치 아니하엿섯다。英佛兩國이 그戰債를米國에 支拂하기가 不可能하면 前記諸島를 그代價으로 讓渡하는것이 當然하다。

元來海軍의 活動力은 海軍根據地의 有無及그價値에 依하야 左右된다。따라서 根據地를 가지지 못한海軍은 그活動範圍가 制限되며 世界的으로 廣大한 通商과 遠隔地의 利權을 保護할수가 업다。米國이 萬若、右述한戰略的島嶼를 太平洋에 가지지 못하면 米國의通商貿易은 海上으로부터 驅逐될는지 모른다。米國은 安全한 太平洋橫斷航路를 形成하기 爲하야 適當한 手段으로써 右諸島의 主權을 獲得하는것이 賢明한 策이다。』

何如間、右述을 보면(一)米國海軍은 어디까지든지 日本海軍을 假想敵으로 하는것。(二)米國의 旣存太平洋橫斷航路만으로는 一旦 有事時에는 南洋委任統治地를 占據한 强力한 日本海軍의 遮斷을 바들 憂慮가 잇스니까 따로 前記諸島嶼를 英佛兩國으로부터 讓受하야 그所謂 南方航路를 新設해야 되겟다는것 또한 (三)米國이 이러케하는 目的은 米國의 極東通商과 利權保護(註=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極東門戶開放과 機會均等主義라고한다)에 잇다는 諸點을 明瞭히 알수가 잇다。

그러고、米國의 이 根據地用島嶼의 讓受策에 對해서는 昨年六月、米國作戰部諜報課의 [illegible]海軍大佐가 海軍學會雜誌에 發表한데 依하면 다음과 가튼 文句로 表現되엿다。

『米國本土及 通商路를 國防하는 地點에 列國으로 하여금艦隊根據地를 獲得케 하지안코、米國이 스사로 獲得하도록 努力하지 아니 하면 안된다。그러기 爲해서는 戰債問題를 利用해라。파나마運河의 防禦를 爲해서는 가라파고스島(에과돌領)의 獲得이 必要하다。(省略)極東方面에 對해서는 戰債와 連結하야 米國은 南太平洋에 잇는 一連의 諸島를 獲得할 機會가 잇다。即、파나마로부터 말크사쓰島及 솔로몬群島를 通過하는것으로서 이 一連의 諸島는 여러가지 點으로 보아 하와이、구암線(註=旣存太平洋橫斷航路)보다 優秀하다。』

右述을 보면 米國海軍은 日本海軍을 相對로 太平洋橫斷航路로 旣存航路外에 다시 南方航路를 新設하려는 意圖가 相當히 强함을 알것이다。(續)

(註=以上諸摘取는 外交時報昭和十年三月十五日號 第五十二頁、五十三頁에 依함。)

結局『에』國領土를 伊太利에割與!

回答期限付로 伊首相에提示

英佛和協案의內容

【巴里八日發電通】八日午前十時三十分부터 佛蘭西外務省에서 호어英外相과 라발佛首相과의 사이에 行한 英佛第二次會談은 英佛의 伊에紛爭 和協試案細目에 關하야 前後實로 約八時間의 長時間에 亘하야 愼重審議를거듭한結果 兩者間에 和協諸條項에 關한完全한 意見一致를 보게되엿스므로 곳此를 英佛兩國政府의 正式承認을어더 드듸어 뭇伊首相에對하야 英佛最後的和協勸告案으로서 提示하야 十二日의 聯盟十八個國委員會前에 諾否의回答을 하게한後 午後六時二十分에 會談을 終了하엿는대 右和協案은 如左히 決定되엿다

라발佛首相

호어英外相

一、伊太利에對하야는 오가덴及그外의二地方의外 티그레州中 이미 伊軍이占據한部分을 伊太利에與함

一、伊太利는 에리트리아、아사브港을 에國에與하는同時에 同港에至하는 廻廊地帶의 使用을 許可함

但 右廻廊을 에디오피아領으로하고 안하는것은追後決定함

一、에디오피아는 다나켈地方에對하여는 一切의 權利를 抛棄하기로함

一、아도와는此를 伊太利에與함

一、악숨은 此를 依然에디오피아領으로함

今日夕刊八面

全般的學制改革

中學에서 곳大學에

【東京電話聯合】內閣審議會는 文敎刷新에 關한 諮問案에 對하야 三回에 亘하야 特別委員會를 開하고 現今 敎育制度의 欠陷을 究明하는 同時에 刷新目標를 樹立하기 爲하야 銳意檢討를 繼續하고잇는데 이審議에 併行하야 調査局에서는 文部省을 爲始하야 其他 關係方面에서 幾多한 資料를 蒐集하야 此를 基調로 全般에 亘하야 學制改革의 大綱確立을 急히하고잇다 그리고 調査局이 調査硏究하고잇는 敎育制度의 欠陷의 最大한것은 實務敎育의 欠陷이라 學制改革의 全般的 實行方針은

一、敎科目의 整理

一、社會敎育의 振興

一、敎育의 實際化、職業化、適正化、劃一打破

一、敎育費의 遞減等 根本方針을 樹立하고 國民保健의 緊密한 所以를드러 小學으로부터 大學에 이르기까지의 現制度를 淸算하고 大學、中學、小學三段階로 改正하야 現在의高等學校를 廢止하고 大學豫科로하야 中學으로부터 直接 大學에 連絡식히기로 하고 大學의 修業年限을 四年乃至 五年으로하려는것이다

林森氏任期는

國民大會까지延期

【南京八日發電通】國民政府主席 林森氏의 任期는 政府組織法을 改正하야 明年十一月十二日召集되는 國民大會까지 延期하기로 되엿는데 同大會에서 大總統을 選出하야 蔣介石氏가 就任할것은 빌서 틀림업는것으로 同時에 多年의 希望이든 大總統이 드디어 明年末 實現될것으로 決定된 셈이다

冀南人民自治

各處長決定發表

委員兼主席에姚祉昌

【天津九日發聯合】冀南人民自治委員會는 旣報한바와가치 七日 宣言을 發表하야 正式으로 成立하게되엿는데 互選한 結果 委員兼主席에 姚祉昌、副主席에 邸致平이 決定되엿다 委員會의 組織은 如左하다

一、秘書處長 何海鳴
一、外交處處長 王靖武
一、保安處處長(兼務) 王靖武
一、財政處處長 許鳳崗
一、敎育處處長(兼務) 何海鳴
一、交通處處長 米子琦
一、建設處處長 未定
一、司法行政處處長 田桑

그리고 各委員은 손을 난호아 縣政府 公安局 其他各 機關을 接收코저 大活動을 開始하얏다

四圍情勢不利로

商震氏外遊決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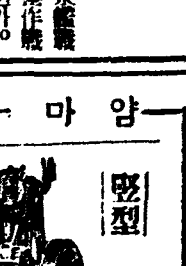
【天津九日發聯合】河北省政府主席商震氏는 本省各職을 辭任한後 可急的速히 外遊키로 豫定하얏는대 第三十二軍은 中央의軍隊임으로 一切中央의 處理에 一任한다는 決意를 表明하고잇다

【天津九日發聯合】商震氏는 四圍의 情勢가 不利함을 察知하고 八日附 中央行政院及軍事委員會에對하야 河北省主席津沽保安司令及第三十二軍長을 辭한다는旨의通電을 發하얏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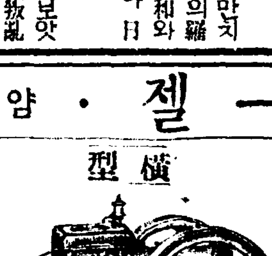
【天津九日發聯合】河北省政府委員及各廳長은 商震氏와 行動을 가치하야 八日附中央政府에 對하야 連袂辭表를 提出하얏다

今秋도亦是 籾摺精米作業에는

얌마ー純디ー젤・얌마ー籾摺機・얌마ー米撰機・얌마ー發動機로決定하심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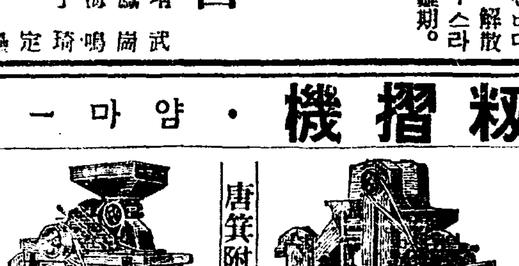
竪型 모든點으로서 絶對 他의追從을不許함 燃料費一錢强(每時一馬力當) 特許實用



橫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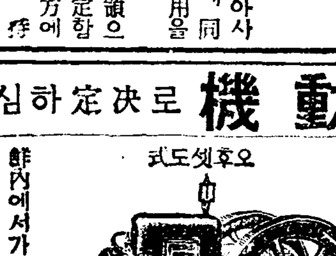
籾摺機는 十年制얌마ー보다 優越한것이다

全自動調節機附



唐箕附 千鳥 平面兼用 末臥

立線米撰機 米撰機中 專賣特許는 얌마ー뿐 農林省推薦機 各府縣御指定



오후셋도式 鮮內에서가장多한 需要者를有한것은 얌마ー發動機뿐 石油 輕油

武力式製粉機 農林省比較審査甲位入選 取扱簡易能率多大 各府縣御指定

申込卽時型錄贈呈

發賣元 株式會社 山岡發動機京城支店 京城驛前 電本局長(2)一〇〇三

血液補給은高速度 補血强壯新藥

다시업는 補血强壯劑

蔘茸精

健康恢復은 斷然蔘茸精 服用에잇다!

蔘茸精은 世界的高貴藥人蔘鹿茸과有機性鐵劑洋藥의强壯劑와 最新學理에依하야 結合한補血强壯劑이다

少量으로 偉大한效果가잇고消化器를苦勞치안코

迅速히 吸收同化되야 新鮮한血液을 늘리고

體重을 增加케하고精力을 旺盛케하며榮養을佳良케하야 根本的으로體軀를改善합니다

우리는좀 人蔘、鹿茸의認識이잇서야할것이다。이人蔘鹿茸이야말로 補血强壯補陰補陽劑로다시업는高貴藥인것입니다。

補血强壯劑를 求하는患者여 不健康者여 당신은꼭 蔘茸精을服用하라 반드시 收穫이잇슬것이다

一五〇瓦入 三圓
五〇〇瓦入 五圓

●說明書請求次第進呈

京城授恩洞三三
總發賣元 朝鮮商會新藥部
電話光 長一七八五 振替京城一〇三八六

最高級의慢性胃腸病新藥

나로ー

년구적체・속병이 나로ー의복용으로전쾌

적체、속병、소화불량、위산과다증、위아토니ー등의 모ー든위장병은 극도로우리의신체를 쇠약하게하고 허약하게하며 만병의저항력을 업게하야 모ー든병에걸리기쉽게체질을 맨드러줍니다 그만치 위장병이란 무섭고어려우며 고질의병입니다 그러나 위장병의초기에잇서는 보통지나는 병이거니생각하야 그대로내버려두거나 혹 증이잇스면 혼히 파는저급의 매약으로 일시적요법에 긋치게됨으로 고질의만성위장병을맨듭니다 속 속아리、적체등의가장위험한 병이되고맙니다 그런후에야 이약저약、이말에끌리고、이광고저광고에끌리여 만흔약을 사먹게되는데 종처럼 그병이 낫지 아니하고 시일만 허비하고 결국 적체가三년 四年되엿다고 한탄케됩니다

그러나 명약은잇는것입니다 최고급위장약 나로ー는 의학적으로 림상학적으로 약학적으로가장 효력이적확한 체증약이니이약은 위장약으로 최고급약을배합하고 금상첨화로 丁다산선생의한방비약과 결합케한 약이니여하한 체증、속병、소화불량등의 위장병이라도 나로ー의복용으로 완전히 정복됩니다 모ー든위장병환자는오시라! 백문이 불여일견이니 푹한번시험하면 그효력에놀라실것입니다

주효…급만성의위장가다ー루、적체、미루체、속병、위아토니ー、위산과다증、소화불량、신경성위약、식욕부진、모ー든위장병에배배주효함

약가 一원・二원・四원

到處藥房에서販賣

發賣元 朝鮮商會 京城府授恩洞三三 電光長一七八五 振替京城一〇三八六

神社參拜問題去益多難

學務局長과五巨頭 會談結果遂決裂

雙方이持論을强硬히固執 今日宣敎師代表會見

긔독교계통학교의 신사참배거부(拒否)문제에 대하야는 루보한바와가티 학무국의 신사참배요구는 강경하여 선교사측의 참배거부의 주장도 강경하야 문제는 장차어떠케발전할는지 매우 주목되든바 선교사측에서는 총독부에 최후적 담판을 하고저 구일오전열한시에 경성의선교사 『호트크로푸트』(許大殿)씨와『로-즈』(魯解理)씨 평양(平壤)의『매큔』(尹山溫)씨 전주(全州)의『린톤』(印敦)씨 목포(木浦)의『칸닌』(金雅各)씨등 다섯 선교사는 외사과 소전(小田)통역관의 통역으로 학무국장실에서 도변(渡邊)학무국장과 대야(大野)학무과장과 만나서 이문제에 대한 최후적중요회담을 하엿다 회담한 결과는 쌍방의 주장이 각기 강경하야 조금도 타협점을 발견치못하고 파렬되고 말엇다 한다 즉 선교사측에서는 의연히 신사(神社)를 일종의 종교로 보고 긔독교신자로서 다른 종교에 참배할수업스며 또 긔독교에서는 지금것 학교 교육에 잇서 경신(敬神)사상을 가르치지 안헛슬뿐 아니라 경신사상을 배척하여왓슨즉 당국의 신사참배요구는 부정당하다 국가적례식의 모든것을 학교에서 거행할지언정 절대로 신사참배만은 못하겟스니 이것을 량해하여달라고 요구하자 도변학무국장은 이에 답변하되 이미 이 문제는 리론적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교육정책의 실제문제로 총독부의 태도에 조금도다름이업다 이미 지시한이상 더말할것이 업스니 신사참배를 하기실커든학교 경영을 그만 두든지 다른 사람에게 넘겨 주든지 생도의 처치를할 때름이 아니냐고강경히 선교사측의 요구를 일축하고 다시종교와 학교의 구별에 대하야 설명한바 잇섯다한다 그리하야 이와가티 쌍방의 주장에는 전연 타협점을 어들수업서 중요한회견도 드듸어파렬되야 이문제의해결은 결국선교사측에서 학무국의 강경한태도에 무조건으로 복종하든가 또는어듸까지든지 항쟁하야 학교의폐쇄를 단행하게까지되든지 두가지길밧게업게되엇스니 문제는과연압흐로 어떠케발전될는지 비상히주목된다

警務當局에서도 斷然彈壓할態度

神社參拜問題討議할基督敎會合 ◇……一切禁止할方針

긔독교계통 학교의 신사참배문제에 대하야는 학무당국이상으로 경무당국에서 주목을 하고 잇서 선교사측의 행동을 감시하고잇는데 경무국에서는 이문제를 결국 재조선 주국인의 배일교육과 마찬가지로 보고 단연 간섭을 할의향으로 국가의 근본적정신과 교육방침에 어그러지는 교육을 한다면 경무국에서는 단호한 결의를 보힐터이라한다 그리하야 경무국에서는 지금까지의 학무당국의 태도를 도리혀 우유부단(優柔不斷)하다고보고 잇서 금후 신사참배문제를 토의하기위하야 긔독교측에서모히는 회합은 경향간을막론하고 일절금지하며 긔독교관계의 학교의단속을 경찰로서도 상당히 엄중히할터이라한다

"學校經營을 斷念함이 조타"

渡邊學務局長 談

신사참배 문제에대하야 선교사대표자 오명과중요한 회담을한 도변(渡邊)학무국장은 다음과가티말하엿다

『당국의 방침에는 조금도다름이업다 명명백백한일이다 선교사측에서는 여러가지 리유를 부치여 변명하나 소용업다 학교경영은 학교경영이고 종교는 종교이다 관공사립을 막론하고 국가의 교육방침은 다갓다 신사참배를 희망함에는 다름이 업스니 하기실커든 학교경영을 그만둘것뿐이 아닌가 긔독교의 선교(宣敎)와 학교교육을 혼동하면안된다 금후라도 이문제에 대하야는 누구가 오든지만나기는 하지만이이상 말할것은업다 국가의 교육정책에 어그러지는학교를 용인할수는단연업다』

決裂은事實 對策講究中

宣敎師許大典氏談

이에 대하야 조선선교사 북장로회(北長老會)실행부 위원장허대전(許大典)씨는 다음과가티말하엿다

교섭이 결렬된것은 사실이나 지금 나로서 거기에 대하야는 말을 할수가 업습니다 다만 방금 조흔 해결책을 엇기 위하야 우리 관게자끼리 상의를 하고잇스니까 오래지 안허서 세상에서도 알게되겟지요

猝寒!――세월맛난 장작바리…

新建設事件廿三名 廿名은執行猶豫

體刑兩名은未決通算三百日、一名無罪 ―今日全州地方法院에서―

【全州支局電話】신건설사(新建設社)사건에 대한 판결언도는 아호레날 오전열한시 사실분 전주지방법원(全州地方法院)제일호법정에서 상야(上野)재판장 으로부터 다음과가티판결언도가잇섯는데 피고들중에서 박영희(朴英熙)외엘아홉명은 모다삼년간 집행유예를바덧고 그남어지는 체형 두사람에 무죄한사람이라 한다

朴英熙 懲役二年執行猶豫三年
尹基鼎 同
李箕永 同二年 同三年
金榮得 同二年 同三年
宋影 同一年八個月 同三年
全平 同一年六個月 同三年
李義百 同一年六個月 同三年
秋完鎬 同一年 同三年
韓秉道 同一年 同三年
權景完 同一年八個月 同三年
李甲基 同一年 同三年
李相春 同一年六個月 同三年
白世哲 同一年 同三年
李東珪 同一年 同三年
邊孝植 同十個月 同一年
金貴永 同一年 同一年
洪長福 同一年 同三年
金炯甲 同一年 同三年
羅雄 同一年 同三年
石一浪 同一年 同三年
朴完植 同一年 (未決拘留三百日通算)
鄭靑山 同一年 (同上)
崔貞熙(女) 無罪

京師三年生 水原서自殺

【水原】목포부 옥정(木浦府旭町)이십사번지 중국류지진(重國留之進)의 장남 중국박(重國博)(二七)은 경성사범학교(京城師範學校)삼학년생인데 지난사일오후일곱시경에 목포행렬차에서 나리여 수원역전(水原驛前)소화려관(昭和旅館)에 투숙하든중 구일아츰 아홉시경에 그려관 하녀가 화로불을 피어가지고 그학생이 자든방으로 들어가보니 죽은지가 벌서 오래인지라 즉시수원서(水原署)에 알리어 조사한결과 독약을 먹은것이 판명되엿다하며 원인은 알수업는데 자과의 친구와 선생에게 유서일곱통을 남기엇다한다

出口王仁三郞의 大逆行動이綻露

起居動作全部가不敬한儀禮로 物的證據도多數發覺

【東京電話聯合】금번에 검거를보게된 대본교주 출구왕인삼랑(出口王仁三郞)이하의 취조와처치에대하야는 당국은 단호한처치를 할결의를 굿게가지고잇서 검거자중에는 적어도 왕인삼랑에게대하야는 형법 제칠십사조(불경죄)를 적용하야 기소할것은 의심할수업는 사실이라한다 지휘에따라 대본교의 철저한박멸을기하야 경보국에서는 검사국의 방 압수한증거품에비치여 놀날만한 불경죄의 전모가 명확하게폭로되엇는데 즉대본교는 표면으로 황도정신(皇道精神)을표방하면서 군인실업가등 다수명사를 흡수하야 전국에 그신도는 삼사십만명을 가지고잇스나 기실은 황실의존엄을 극도로모욕한불경죄가 구성될 최상이확실히 폭로되엇슴으로 내무성경보국(警保局)에서는 대본교를 공인종교로 인정치안는것은 무론사법성과 서로신중하게 협의해서 대본교를 해산시킬최후적 탄압을 하려하고잇다 더구나 교주왕인삼랑은 대정십년시월오일 불경범인으로 형의확정이되엿든데도 불구하고 대사(大赦)의 은전을바더 중오하여잇는중에 또이번과가튼 황실에 대한 불경죄를범한것은 단연묵과할수 업는일이라해서 형법(刑法)제칠십사조에 의하여 처단하는동시 이번을기회로 대본교의 근본적 절멸을취하기로 수노부에서 방침을결정햇다한다

【東京電話電通】대본교(大本敎)의 불경사실에 대하야 경보국(警保局)에서 조사한결과는 상상외로 만허서 검찰관계자는모다놀래고잇다 출구화이삼랑(出口和仁三郞)은 자긔가 일본투치자라고 밋고잇는듯한 언동이만코 ○○라고 자칭하고 신자(信者)를 사열할때에는 휘합을울리며 사령(辭令)을 줄때에는 특선(特選)출구화이삼랑○○라고서명하며 또박게나갈때의 행렬에도 전구(前驅)후구(後驅)의명칭을 창용하고 그의집을 황거(皇居)에모방하야 경비원을 배치하며 또그의 신변에서 일하는녀자들을 근시(近侍)라고 불르고의식때의 음악은 국진(國鎭)서수곡(瑞穗曲)등을 연주케하엿다 그리고 능부(綾部)를후고천원(後高天原)이라고 칭하야 일본의 수도라고 불르게하며어문장(御紋章)에대하여도 불손한취급을 하여온것이다

中途退學生의 月謝返還判決

但未成年者適法手續限

졸업할때까지의 수업료(授業料)를 한꺼번에 바치고 입학하엿다 할지라도 그입학생이 미성년자로서 그부모가 중도에 입학을 취소시키는때에는 학교에서는 그수업료를 도루 돌려주어야된다는 판결이 수일전경성지방법원에서 나렷는데 학교장은 그것을 불복하고 경성복심법원으로 공소하엿다 이사건의 원고는 경기도 김포군양촌면 구래리(金浦郡陽村面九來里)사는 리영근(李榮根)의장남리병규(李柄奎)라는 소년이요 피고는시내 태평통(太平通)남대문자동차학교(南大門自動車學校)장김상설(金相高)씨인데 원고 리병규는 대정륙년 일월십륙일에출생한 미성년자로 그의 아버지의승락도 엇지안코 몰래 서울에 올라와서 금년삼월 이십오일에 남대문자동차학교책임과(責任科)에 입학하고 졸업할때까지의 수업료전액 일백팔십원을 전납하엿다 그뒤 얼마안되여 그의 아버지는 사월삼일에 그학교에 그아들의 입학을 취소해달라하고 그이튼날에는 서면으로 통지까지하엿다 그리고 이틀뒤에 그학교로차저가서 삼월이십오일부터 사월삼일까지 공부한 수업료로 한달치륙원을 제하고 남아지 일백칠십사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하엿다 이에 대하야 피고 자동차학교장 김씨는 원고리병규가 미성년자이며 부모의 승락도업시 입학한 사실과 그부친이 입학을 취소한다는 통지는 바덧스나 그학생은 퇴학수속도 하지안헛슬뿐더러 학교규측에 한번바든 수업료는 어떠한 사정이 잇더라도 돌려주지 안키로 되여 잇스므로 그청구에 응할수 업다고 항변하엿다 그러나 경성지방법원 천기(川崎)판사는 미성년자의부친으로부터 입학취소통지가 잇섯슨즉 그입학은 당초부터 무효이며 또한 학교규측에 아모리 한번바든 수업료는 어떠한 사정이잇다드라도 돌려줄수가 업다고하지마는 그것은 그입학이 적법(適法)으로 되엿슬경우에만 준용될것이오 이런 경우에는 적용되지못한다 하야 결국 원고의 청구금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하엿다 그런데 피고는이것을 불복하고 공소한것이다

運動競技

伯林올림픽大會 不參案否決 米體協總會에서

【뉴-욕七日發聯合】米國體育協會에서는 七日에 열린 總會에서 第十一回伯林올림픽大會『뽀이콧트』案을 審議하엿는데 參加反對者는 『米國體育協會는 第十一回올림픽大會를『나치스』政府가 主催者로되여 開催하는것을 反對한다』는 旨의 決議案을 提出하야 右決議案은 곳票決에 附하게되여 六十一票六十分之三十三對五十五票六十分之二十七로 大會뽀이콧트案은 드듸어否決되엿다 그리하야 米國體育協會는 正式으로 伯林大會에 參加키로 決定되엿다

開城에서惜敗 延專柔道遠征軍

西朝鮮地方으로 轉戰中에잇는 延專柔道部一行은 지난六日에 開城에到着하야 松都光武館과 對戰한바 兩軍技量이 莫上莫下하야 白熱戰을演하드니 結局四對三으로 延專軍이 惜敗하엿다

【延專軍】3…4【光武軍】

鄭[illegible]…無勝…劉東旭
○李海俊…無勝…金泳昊×
李海俊…無勝…金性準
金[illegible]星……李培根
×崔鳳鎭…無勝…安慶[illegible]○
宋形吶…無勝…安慶[illegible]
周聖鎭…無勝…安[illegible]鎬
李鍾武…無勝…玄[illegible]
申仁敏…無勝…具敎憲
李春煥…無勝…金東俊
×李定業……金點孫
○李啓一……閔完植○
李啓一…無勝…閔完植×
×李東壽……金富吉
○金潤根……孫洪一○
×金潤根……孫洪一×
玄鍾大○

우리들의 "컨디숀"良好 奉天서金正淵發信

前略…우리 一行은 지난五日아침에 이곳에到着하야 모다良好한『컨디숀』으로 練習에 熱中하고잇습니다 제가 지난여름에 東京芝浦링크에서 일본選手들이 이번씨-슨에 影響이나잇지안을가하고여러가지로 念慮해주섯지만 實際로링크에 서니 컨디숀은 [illegible] 別無差異하옵기에 安心하여주십시요 朝鮮이라는 커다란이름을 업고나가는 우리이라 決死的 奮闘를하고야 말것입니다 더구나구차한 우리의遠征을 同情하야 貴社에서 經濟的도움을 액기지안흔데對하여서는 오즉 感謝를마지안는바입니다

近日中에 各選手의記錄을 通知하겟사오며 來十五、六日에는 安東縣에서열리는 模範競技會에 出場할豫定입니다

十二月七日

奉天市琴平町瀋陽館 金正淵올림

明大럭비優勝

【東京電話電通】七大學럭비·리그戰 明大對東大試合은 八日午後二時半부터 神宮競技場에서 東大先蹴으로 開始되엿는데 結局八十對零으로 明大大勝하엿는데 明大는 今씨-슨리그에잇서 六戰六勝의 全勝率로 서優勝하엿다

明大 80 (4733……00) 0 東大

허-들新規則採用

日本陸上競技聯盟에서는 一九三四年에 『스톡홀름』에서行한 國際陸聯總會에서 改正된 新形式의 『허-들』採用의 實施를 只今까지 延期하여오든바 이新規則이 갈작이 來年伯林올림픽大會에 實施케되엇슴으로 日本서도 이硏究에着手하는同時에 可及的迅速히 이 新規則의『허-들』을使用하는競技會를實施케되여 各運動具店에 對하야 目下多數의試作을依賴하얏다는데 이新形式『허-들』採用에 添付되여實施될 新規則은 從來의 『三臺以上을 넘어트렷을때에는 失格 또는 記錄不認定』이라는 失格條項을 削除하고 옛날처럼 너머트러도 失格되지안으며 따라서 記錄도承認한다는것인데 이新허-들의 相違點은 横木以外에는 全部金屬製로서 支柱와基底部는 L字型으로 接續하야잇서 形式은 從來의『허-들』과 갓다한다

紅把洞에小火

구일오전한시 십분에 시내홍파동(紅把洞)구십사번지 김호준(金豪俊)의 집건너방에서 불이나서 약한평가량태우고 이십분에 불을잡앗다 불난원인은 건너방에 손이와서 류숙하엿는데 초ㅅ불을켜노코 끄지안코 누어잣기때문에불이 벽에옮마부터서 불을내게된것이라고한다 손해는 약십오원가량이며 사람은 상하지안햇다한다

短刀를내들고 面會를强請

팔일오후여섯시경에 시외하왕십리(下往十里)칠백구십팔번지 오광근(吳光根)의 집에 어떤청년 한명이 차자와서 주인을보자고 면회를 강청하다 듯지안흐니까 그청년은 품속에서 단도한자루를 끄내여가지고 협박을하면서 폭행을 하는것을마춤 동대문서(東大門署)원이 발견하고 곳검속하야 본서에 류치한후 그가 단순히 폭행만한것인지 또는 금전등을 강요하라고 그런것인지를 엄중취조중인데 그는 일정한 주소가업는오영석(吳永錫)이라한다

天氣豫報

優勢한 低氣壓은 千島에잇고 七二〇미리의 小低氣壓은 本州中部南岸에잇다 大陸高氣壓은 크게發達하야 七七八미리로되여北中國으로부터朝鮮으로 퍼지고氣壓의 傾斜는 퍽急하다 滿洲는맑고 바람이 弱하다 朝鮮은흐리고 沿岸은 北風이强하고 氣溫은 昨朝보다 八度乃至 一〇度로내려다 國境中部는 零下三二度로내렷다 日本內地와 中部以西는 맑고 東北地方以北은 風雪이强하다

豫報 京城地方은 今夜西쪽바람이불고 맑엇다 흐렷다하고 치워진다 京畿道全區도 갓다 明日도 今夜와갓다

昨日最高 八度五 最低 零下四度九 今日正午 零下六度一

참다운宗敎

종교는 어떤 학설이 아니오 주장이 아니오 다만 하나님의 계시로되여야할것이다 종교 중에는 과연 사람의 리성으로 하나님을 찾는 운동, 혹은 자신의 진생명을 구하는 운동으로 된것도 잇는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운동으로 하나님을 찾아 맛나는자 업다 혹은 다 성취하고 해결한줄로 알아서 그대로 인민에게 선전하고 가르친 결과 오늘 세상에 잇는 종교들이 성립하게 된것이다 그러나 이것보나 더 진정한성취와 해결이 잇어야하겟는데 이는곳 아레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운동 그것보다 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운동 그것이 더욱 긴요한것이다 이운동은 어느 종교에서실현되엿을가 『예수』교인으로서 그것이라 하면 자체 주장이라고 할것인즉 사람사람이 스서로 결정할이것다 이결정할 시기도 너무 천연하지 말것은 기회이란 그러케 사람을 기다리고만잇는것이 아닌때문이다

偉大한二大工業依製합 돈버리 조흔家庭工業
最高의社會信用잇는大事業紹介進呈
第一 … 第二 …
內外貿易株式會社

特製 루-베리
速히난는淋疾藥
물음 압흠 꼿꼿침
藥價 二円、三円、五円、十円
大阪市南久太郎町堺筋 竹村製劑所 振替大阪三六〇番
全國到處ノ藥店ニアリ

肥滿劑
身體瘦瘠한데여러가지療養도無効하야困難한분은藥書로申請하면胃腸을健全하며肥滿케하는良藥의說明書進呈
東京市麻布笄町七十一 小川藥院

醫學堂眼鏡店
主任 書秉學
檢眼 無料
檢眼 洪錫厚博士擔任
京城鍾路青年會館 電話光二二八一番

朝報案內
社員急募 ▲忠南、忠北、京畿駐在員▲二十五歲以上、敎養有資格家▲希望者至急履歷書送附
京城府黃金町三丁目 昭和生命中鮮出張所長 福島幸正

好職業
不景氣와失敗는업다 利益만코本業副業으로男女老小兒童近間自宅에서 될수잇는職業、年中無休、業者도申込하라 說明書及見本無代進呈
急募 大阪天王寺區堂ケ芝町 福榮本舖

FUKU MONAL
모루히네其他塩類中毒에 福모나-루
福모나-루의特徵
包裝 5錠入 10錠入 20錠入 50錠入
製造元 順天堂醫化學硏究所
發賣元 大阪 田邊五兵衛商店

紳士用 最高級自轉車
日本一 二共實店
グレヤー ¥95.00
ガイセン ¥85.00
ビクター ¥85.00
オリエント ¥85.00
神戸市 帝國鉄工所
朝鮮一手販売店 京城府 東亞輪業株式會社
保證二ケ年

各種信託 低利貸出 迅速有利
朝鮮信託株式會社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十九番地
社長 谷多喜磨
支店所在地 (群山、釜山、木浦 平壤、大邱)
(營業案內贈呈)

登錄商標 거북선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서울고무工社電光一一五九

痔는
手術안코 오세로치의 藥으로곳치라
全國各藥店에잇음

長生不老도 陽氣가 조아야!
大業成就도 陽氣가 조아야!
陽虛한 男子는 生不如死다!
速히 이-樺太廳官營採取品인
眞品 海狗腎 을服用하라
本品은補精腎氣强壯에神秘的靈効가有한바北洋寒帶地方의產物인樺太廳에서官營으로捕獲하야同廳水產物檢査所에서嚴正檢査證明한世界的高貴의眞品이라一服하시면그神効를能히料量할것이외다
(求服을願하시는분은說明書請求次第곳進呈함)
發賣元 合資會社 大洋貿易社
釜山府草梁町三貳二番地ノ三 電話長一二二九番 振替釜山七九二三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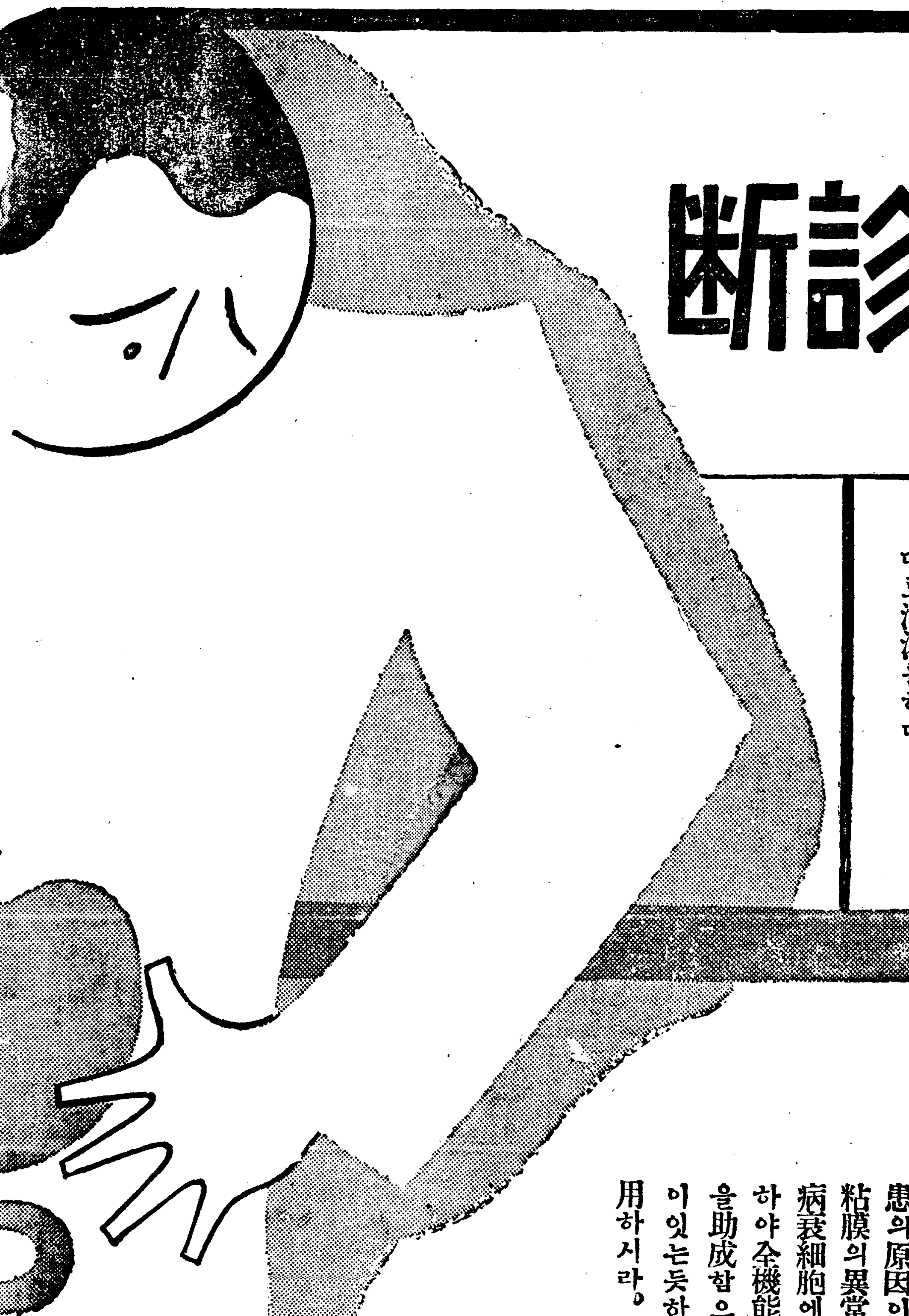
◇十二月九日부터!
◇大衆料金 階上 十五錢 階下 十錢均一
◇土曜日曜祭祝日은晝夜二回公開 낫一時밤七時十五分始映
◇파라마운트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社會悲劇 부론도뷔나스 全十卷
監督 죠셉호온스단바-그-氏 主演 마레네데이트릿히 하바-트마-샬氏 캐리크란트氏
◇파라마운트社超特作無聲映畵 社會人情活劇 暗黑街 全八卷
監督 죠셉·호온스단바-그-氏 主演 죠-지방크롭트氏
◇캬스베앙社特作品 漫畵 蛙의王 全二卷
豫告=復活=소할과그의아들=白馬王國=푸란켄슈타인의新婦= 무라운의爆笑大勝利
次週=六月十三日의밤=男裝女劍客
麻浦桃花洞 電話 三一二 桃花劇場

十二月十日封切
每日三回 (午前十時半、午後一時半、六時半)
【特別大興行】
R·K·O·라듸오超特作映畵
찐자로자-스、아이린떤 프레드、아스테어 主演
로바-다
拔群의音樂舞踊映畵、그輕快絶妙한맛金쇼의三重奏、豪華絢爛한流行의粹、恍惚한音樂의메로듸!
◇R·K·O·라듸오特作映畵
뻑라이안、에한、장허쏠트풀、루카-스主演
泉 (새암)
映畵藝術의新境地! 사랑과生活의泉은스사로自己마음가운데잇나니、그外觀으로부터解脫하여라、高踏的最高名篇!!
◇嵐寬壽郞映畵社全發聲
嵐寬壽郞 主演 荒木又右衛門
次週封切 사랑의聽避所、夕暮의노래
全鮮第一 映畵殿堂 電光 九五九 團成社

慢性胃腸病には(에는)アイフ(아이후)

胃腸病素人診断

▼이런症狀이잇는듯한분은곳アイフ를服用하시라！



急性胃 가다루

食慾이업고、명치끗이당기우고噯氣가난다、胃의周圍가뿔코、엇전지不快한感을 이르키며 發熱되야胃痛을이르키며、甚한頭痛이나서 嘔吐를하며、吐嘔後에는一時시원하다。

慢性胃 가다루

食慾이안나고、입맛이낫부고、口渴을感하게된다。혀에는白苔가끼고、嘈囃、噯氣가甚하고、心窩部에膨脹한感、壓迫感이잇고、胃痛이나며、便秘가되며、때로泄瀉를한다。

胃아토니

心窩部에 壓迫感이잇고、아무것도안먹엇는데항상胃가膨脹한거와가튼感이잇고、噯氣가甚하며、胃痛을感하야嘔吐을하며、반듯시누어心窩部를輕하게두다리면、출낭 출낭소리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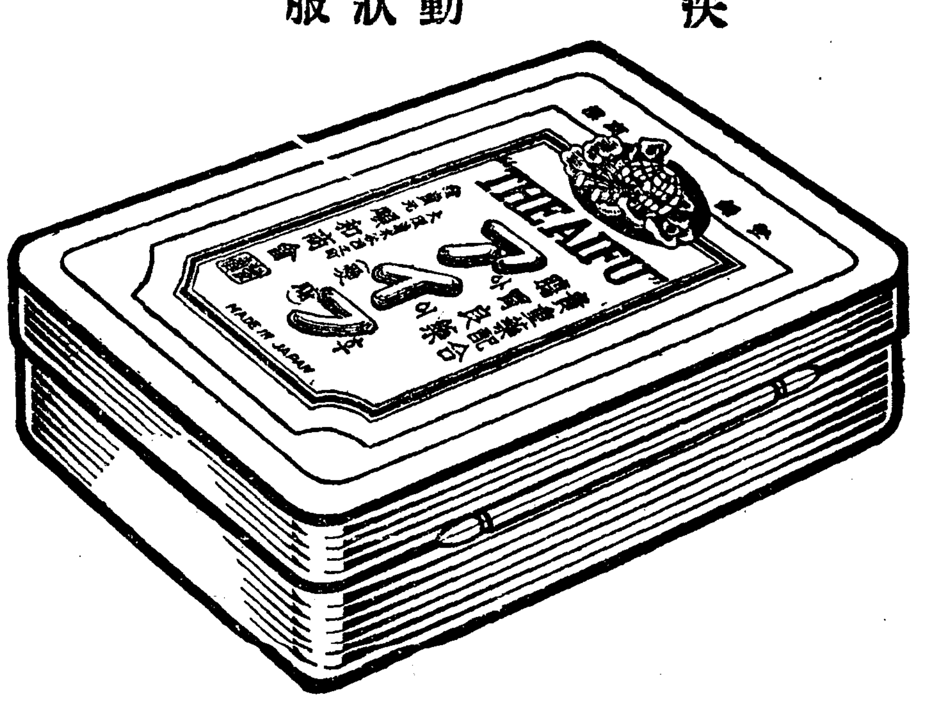
胃下垂症

食後에 배가부르고、언제까지나停滯된거와가튼感이잇스며、흔히噯氣가나고、呑酸、嘔吐를하야胃痛을感하게되며、食慾은항상減退되지만 때로亢進되는일도잇스며、便秘가되기쉽다。

胃擴張

飮食物를먹으면곳、胃部에膨滿되는感과壓迫되는感을이르키며、痛症이나며、嘈囃、噯氣가甚하여지며便秘가된다、食慾은낫부지안치만重하게되면아무것도먹지못하고 때때로嘔吐를한다

治療藥アイフ는이런等疾患의原因이되는、胃腸粘膜의異常을整齊하며病衰細胞에活力을賦與하야全機能의健全한活動을助成함으로써이런症狀이잇는듯한분들은速히服用하시라。



胃酸過多症

食後二三時間지나면、甚한嘈囃이나며噯氣가난다。空腹때로는呑酸이난다。時에甚한胃痛을이르키며嘔吐를한다、무어나먹으면一時鎭痛이된다、食慾은異常하게亢進하야便秘가된다。

胃潰瘍

胃의部分은어듸라할것업시壓迫、停滯、膨滿의感이난다。食後一時間쯤지나면心窩部가어여내는듯히압흐고엇게와등에放射된다。嘔吐를하며吐血를한다。大便에는血液이석가고거문빗이난다。

急性腸 가다루

반드시泄瀉를이르키며腹痛이난다。裏急後重이라고해서、排便을하면곳또마려운等一日十數回에미천다。便은물과가튼泄瀉便으로서腹部가고록고록울며發熱、惡寒頭痛이난다。

慢性腸 가다루

食慾不振으로口喝이나고食後면곳泄瀉가난다、一便은軟便혹은泄瀉便으로一日二三回로부터五六回、腹痛、疝痛을끼고、배가부르면서고록고록울고늘放屁가만코、身體衰弱하야神經過敏

大阪市東區淸水谷西之町

發賣本舖 **順和商會**

振替大阪三四五番 電話(東)五〇〇〇・五〇〇二・五〇〇三番

東京 東京市本鄕區眞砂町九番地 振替東京六二二八八番 電話小石川(四)〇一〇〇番

大連 大連市山縣通一丁目 振替大連三七六五五番 電話七〇六八番

◀全國到處有名藥店에잇슴◀

藥價

胃と腸の兩病にはアイフ(粉末)

三服入	二十錢
四日分	七十五錢
八日分	一圓五十錢
十七日分	三圓
四十五日分	七圓
特製十一日分	五圓

胃病專門には健胃アイフ(錠劑)

七十五錠入	五十錢
百六十錠入	一圓
三百四十錠入	二圓
千錠入	五圓

현대의미발술은 퍼머넨트·웨이브 ①

吳淑根

녀성이 머리깍거 갓든지차리라는경향은 벌서 세계적으로 류행되고잇습니다 따라서 머리를깍되 깍근다음에오는 보기조흔단발 즉예술적 단발을 맨들기위해서는『웨이브』가 현재에 공통된 미발술이되어잇습니다 가튼『웨이브』중에서도 『퍼-머네트·웨이브』의 세력이 세계적으로 풍미하는니만콤 여기에대한것을 녀왕미장원(女王美粧院) 오숙근(吳淑根)녀사에게 듯기로 햇습니다

녀자의 단발은 최근의 경향(傾向)이요 또장래를 『리-드』하리라고 밋습니다마는 십수년전만 하야도 큰 괴변으로 녀기든것입니다. 그러할법도하지요 고대지나(古代支那)에서는 제후회맹(諸侯會盟)에 피를 찍어 맹서하엿고, 우리나라 녀자는 맹천서지(盟天誓地)、자긔의 전생명을 들어 맹서하는 표로 머리를 버히든것입니다. 이점에서 녀자의 머리는 곳 녀자의 생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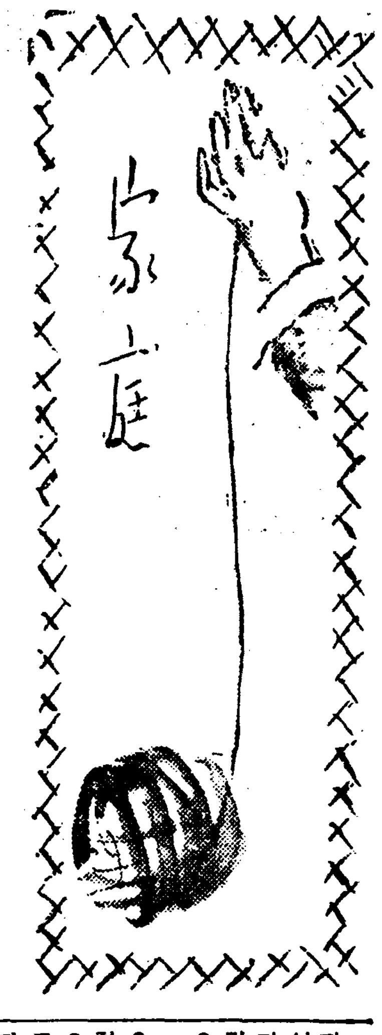
이와가티 귀중한 머리를 앗김업시 선뜻 버혀 한때의 신긔록을 지을뿐더러、녀자단발의 첫긔록을 만든이가 누구입니까. 당대의 려희(麗姬) 강명화(康明花)양이 그분입니다。그당시의 분분한 세평(世評)은 하여간에 그는 분명히 나(自我)를 살리기 위하야 나를 죽인것입니다 그후 얼마안되여서 사상방면에 피를 흘리든 신진녀성중에 멧

멧 단발랑(그때칭호로)이 생겻습니다。삭발출가(削髮出家)한 니승(尼僧)을 불보살(佛菩薩)에 귀의(歸依)한 선녀자(善女子)라면 그네들은 대중(大衆)에로의 새사도(使徒)들이엿습니다。

이와가티 오늘날 류행의 단발도 피(血)의 력사요 지성(至誠)의 눈물에서 나온것을 긔억할때에 다시한번 경건(敬虔)한 무릅을 꿀지아니할수업습니다。

단발도 그러하려니와 이와병행(倂行)되는 『웨이브』도 확실히 작금(昨今)의 신긔에 하나입니다。단발이 류행하는 오늘날 『웨이브』는 당연한 추세(趨勢)로 볼수잇습니다。동서양을 물론하고、녀자의 긴머리(長髮)는 그네들의 가장큰 관심(關心)의 하나요 자랑의 하나엿습니다 그러든것이 역시 시대의 흐름으로 단발이류행하게되자 깍는것은 용단(勇斷)이요 깍근머리를 그려안고 섭섭한 회포를금치못하는거 긔야말로 녀자의 아름다운 정서(情緖)의 발로가아니겟습닛가。섭섭한정은 부족(不足)을 늣기는데 서생깁니다。『ㄴ듯하다』의 반대가『섭섭하다』입니다。길든머리가 잘라젓스니 섭섭하고 숫진머리가 몽총하야젓스니 섭섭도 한일이지요。부족(不足)은보충(補充)을 요구합니다 단발의 부족감(不足感)을 보충하는공작(工作)이『웨이브』입니다。

『웨이브』라면 물결(波)이란말도되고 물결친다는뜻도됩니다。우리가 잔잔한수면(水面)에 돌을던저서 물결을 이르키고보면 처음은 세게 굵게 크게 멀리—이러케 번저나갈수록 파문(波紋)은점점 약하게 가늘게작게 좁게줄어들어서 아조업서지는것갓지만 실상은 여파(餘波)에여파를내여 운동은영원히 정지하지아니 하리라는것을 상상(想像)할수잇게됩니다。



가슴을 졸라매니 몸에 해로울박게

부인네의치마끈남자의허리띠 개량할점만흔조선옷

조선의복은 남녀의옷을 물론하고 가슴을 졸라매게 됩니다。사내는 그래도 허리띠 하나뿐이지만은 안악네는 속곳、단속곳、바지、치마등 겹처겹처 띠를 매게됩니다。그것이 과연 몸에 조흘까요? 요사이 모던뽀이들은 양복을 조선식바지모냥으로 가슴에까지 치켜올리고 질방도 지지안흔 혁대로도 동여맵니다 그뿐아니라 녀자양복도 가슴에다가 띠를 두르게 됩니다。그것이 과연몸에 조흘까요? 조선사람에 호흡긔병이 비교적만흔편인듯하니 그것이 그관게가 아닐찌 모르겟습니다。그것은 양복이 류행한뒤 일본녀자에 호흡긔병이 만허 진다는것만 가지고도 그러케 추칙하기 어렵지 안습니다。

사람의 몸에 어느부분이 중요치 안하리가만은 중요한 중에도 중요한것은 염통 즉 심장과 부하 즉 폐라고 할것입니다。그 중요한 심장과 폐가 모다 가슴ㅅ속에 들어잇기때문에 가슴은 갈비때 뼈로 싸서 자연적으로 잘 위하게 되는것입니다。그런데 가슴을

짠뜩졸라매어

보십시요。심장은 그래도 모르지만은 폐는 압박을 당하는만큼 숨을 맘족하게 쉬지 못하게 됩니다。그러니까 적어도 일분간에 숨을 두번 내지 다섯번 가량이나 더자조 쉬지 안하면 안되게 됩니다。그것도 한두시간이야 모관게업겟지만은 아츰부터 밤까지 그러케 계속한다고 하고 좀 생각해 보십시요。얼마나 폐가 고달프고 그결과 얼마나 폐가 쇠약해지는지 아십니까?

세상ㅅ사람들이

흔히 조그만데 부주의하다가 큰 병을 맨드는바 그역시 그러한 부주의의 하나가 아니겟습니까?

×

요사이 조끼치마라고 하야 깨에 지는 치마가 잇습니다。치마에서 띠를 떼내 버리고그러케 전부 변해 버리면 어떠켓습니까? 치만만 조끼치마로 변한다면 속옷은 전부 치마에 단추를 달아 꿰어 입도록 할수도 잇고 또 정히 그것이허

가슴아래로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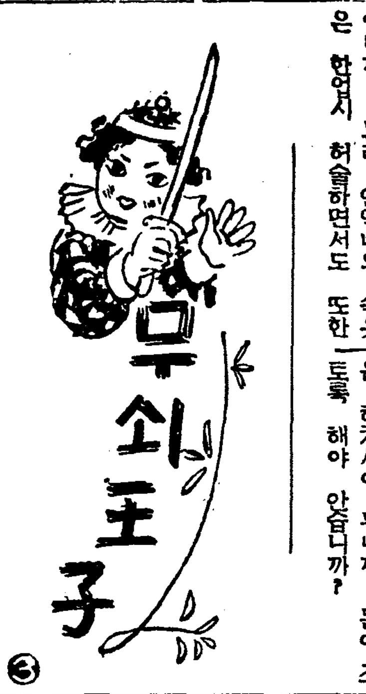
전하거든 맨속에 입는 옷 한가지쯤만 가슴아래로띄를 매어 입도록 해도 무방 합니다。그러케 해 보실 수 업겟습니까? 본래 안악네의 속옷은 한어시 허술하면서도 또한 엇시 똥똥하게 입습니다。차라리 든든한 속옷 한개를 입고 그 우에 치마를 두루는 이만 옷모양으로 보나 딴점으로 보나 과이못하지나 안할까 생각합니다。띄에 대한 폐해를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이긔회를 빌어서 속옷은 전부고치는것이 어떨까요? 어린아히

개구멍바지가티

밋을 터놋는것도 실상 남새스러웁기 짝업는노릇이지요。

×

사내양복을 가슴위로까지 치키는 것은 본래 말할것이 못되지만은 남자조선옷의 허리띠와 녀자양복의 띠만은 좀 개량을 요구합니다。어떠케든지 해서 가슴을 압박치 안해야 합니다。몸을 가리는 옷으로 몸을 해처서야 됩니까? 몸에 조토록 해야 안씁니까?



무쇠王子 ③

崔秉和

그래서 무쇠왕자와 룡은 『잉! 잉!』『잉! 잉!』하면서 씨름을하엿는데 얼마안되여서 무쇠왕자는 룡을 번적 드러서 바위보다도더 단단한 무쇠가마니속에 무릅까지 처박어 넛코 그리고 허리에찬칼을 뽑아서룡의여섯머리를 모조리 베여떠려트렷습니다。

공주는 엇더케 깃븐지 깡충 깡충 춤을추면서 『참말 너는 장하고낭 너의덕택으로 목숨이살엇다。그러나섭문밧그로 나갈라면 칼이꼿친다리를 건너가야겟는데 엇더케건너가니。』하고 걱정하엿습니다 『누님、걱정마오。이러케하면 건너갈수잇수』하고 죽은룡의가죽을 벗겨서 그가죽을 다리위에 덥허놧습니다。이러케해서 남매는 조금도 상하지안코 아조쉽게 다리를 건넛습니다。그때 왕자에게 무쇠궤작을주든 할머니가또 어듸서부터와서 『아!왕자님!깃븝니다。어렵지안케 누님을 차지셧습니다그려자! 이공주님은 제가 임금님께 모서다가 드릴테니 당신은 대장간하는 내동생에게로 곳가 보십시요。필경 조흔일이 잇슬터이니요。』하고 공주를데리고 어듸론지사라저바리엿습니다。그래서 무쇠왕자는 가르켜준 대로 대장간에 가니깐

『아、왕자님 잘오시엿습니다。당신은 매우 튼튼하시여서 무쇠왕자로 불느지만 이번에는 제가 더 튼튼하게 달련하야 정말 무쇠왕자로 맨드러 드리지요』하고말하므로 왕자는 『그것은 참 고마우신 말슴이요』하고말하엿습니다。그래서대장쟁이는 우선 새ㅅ밝앗케 타오른 불속에 무쇠왕자를 드러트리고 몸뚱이가 새ㅅ밝앗케 단 다음에 왕자를꺼내서 무쇠망치로 왕자의몸뚱이를 뚝!딱!뚝!딱! 하고 두둘겻습니다。

이러케해서 전보다도 열갑절이나 튼튼하여진 그야말로 정말 무쇠왕자는 용감스럽게 둘재누님을차즈려 길을떠낫습니다。얼마안되야서 훌륭한 금빗(金色)성압헤 이르럿습니다。『이곳이로구나』이러케 생각한 왕자는 성안으로 뛰여드러가낫간 이번에는 대가리 아홉달린 룡이 눈을 부르또고 무쇠왕자가 오길을 기다리엿습니다。

『무쇠왕자란놈은 네놈이냐 네놈이 오길 퍽 기다렷다 어듸나하고 내길하자』하고 룡왕이 말하엿습니다。

『조타、무어이든지 내기하자』

『자-그러면 먼저 불로 내길하자。나는 빨간불이 될터이니 너는 파란불이되여라』하고 말하엿지만 왕자는 『네가 파란불이 되여라』하고 왕자가 먼저 빨간불이 되여가지고 싸웟습니다。그때 한마리비실흔까마귀가 날러왓스므로룡은

『비실흔 까마귀 비실흔 까마귀 밝안불에 물을부어라 밝안불에 물을부면 비실흔 까마귀 파란불에 물을부어라 머리를하나 주마』하고 말하엿습니다。그때 왕자도 지지안코

『비실흔 까마귀 비실흔 까마귀 파란불에 물을부어라 머리를아홉개 모다주마』하고 큰소리로 말하엿습니다。

비실흔까마귀는 즉시 파란불에다가 비를내려서 파란불을 남기지안코 다 꺼버렷습니다。왕자는 즉시 룡의 아홉머리를톡톡 잘나버렷습니다。그리고 그것을 모다 까마귀에게 주엇습니다。

이러케해서 무쇠왕자는 섬김혼속에 갓처잇는 둘재누님을 구해내가지고 임금님계신곳으로 보냇습니다。

이런털실은납부다

털실을 사실때 그품질이 조코 낫븐것을 말슴하겟습니다 털실을 만저보와 탄력이업시부드러우며 털이 가늘게 약간섞긴것은 결코조흔품질이 안입니다 이러한 모사는 유래가 업습관만안이라 내복 이나『세타ㅣ』를 만든다면 입고보면 얼마가지안허 보푸러기가 일기시작하면 볼품도업고 때도속히 탐니다 이런 종류의 털실은 헐하나이적거서겨울한만 안니라 품질이 조치못한 원료에다 송흙석거서 제조한것인 때문 입니다 조흔품질은 드러보면 가볍고도 부드러우며 상당히 강한탄력을 가지고잇습니다 이런것은 오랫동안 입어도 윤태가나서 보기도조흐며 때도타지안습니다 그리고 우량한원료로서 정밀히 만든것이기때문에 염색에 잇서서도 빗갈이 번치안코 무더나지안흐나 품질이 조치못한것은 색갈이 곳변하며 다른의복에 무더납니다

이린어 제문량식

도야지의간먹으면 젓이쏘다진다

젓이 업는 어머니에게 아조 반가운 소식— 동경리화학 연구소(東京理化學研究所)의 중원화랑박사(中原和郎博士)는 최근 근원이되는 물질을 발견하얏다。그래서 아모리 젓이 안나는 부인네라도 곳 젓을나도록 할수 잇게되얏다。그것도 별 까다러운약을 먹는것이 아니요 소나 도야지의 간을 먹이는것이다。처음 쥐에게 실험해 보아서 백발백중이요 그다음 사람에게 실험해 보아서 마찬가지의 효과를 거두엇다고 한다。그래서 소나 도야지의 간을 가지고『레바』라는 약을 맨들엇는데 반듯이 레바를 먹어야만 된다는것도 아니다。즉접 그 간을 어떠케 요리해서 먹든지 그 효과는 조금도 감하지 안는다고 한다。그러나 산후에 될수 잇스면 빨리 먹는것이 조흐니 빠를사록 효과가 더나타나는것이 지금까지의 실험으로 보아서 그저 산후일주일이내라면 거의 장담할수 잇게되는 모양이다。비단소나 도야지의 간만이 아니라 닭의 간도 무방하다。그로보아서 젓의 근원되는 무엇이이런동물의 간에 제일 만히포함되야 잇다는것만은 사실이다。중원박사는 그 물질을 인자엘(因子L)이라고 이름지엇다고한다。하여튼 반가운 소식이니 빨리 각가정에서 실험해보시는것이 조흘듯

九日(月曜)

◇午後六時 童話 金福鎭
◇同六時二五分 經濟解說 朝鮮中央日報經濟部長 李相㬚
◇同七時三〇分 記念講演 夏目漱石의藝術態度에對하야 普專講師 咸逸敦
◇同八時 寧邊歌外 一、寧邊歌 二、孔明歌 三、山念佛 四、京西百里 五、노래가락 李眞鳳 金玉葉
◇同八時三〇分 古談 因果報復 吳昨根
◇同九時 떼이올린獨奏 一、스프링 소나타中에서 第一樂章 베-토-벤作曲 二、모-멘트 뮤-지칼…슈-버-트作曲 四、夢想曲…슈-망作曲 五、마주루카…위니아우스키作曲 피아노伴奏J·B스투데니 安聖敎
◇同九時一〇分 浪花節 一、大石의男子離別 二、紺屋高尾 吳德重

十日(火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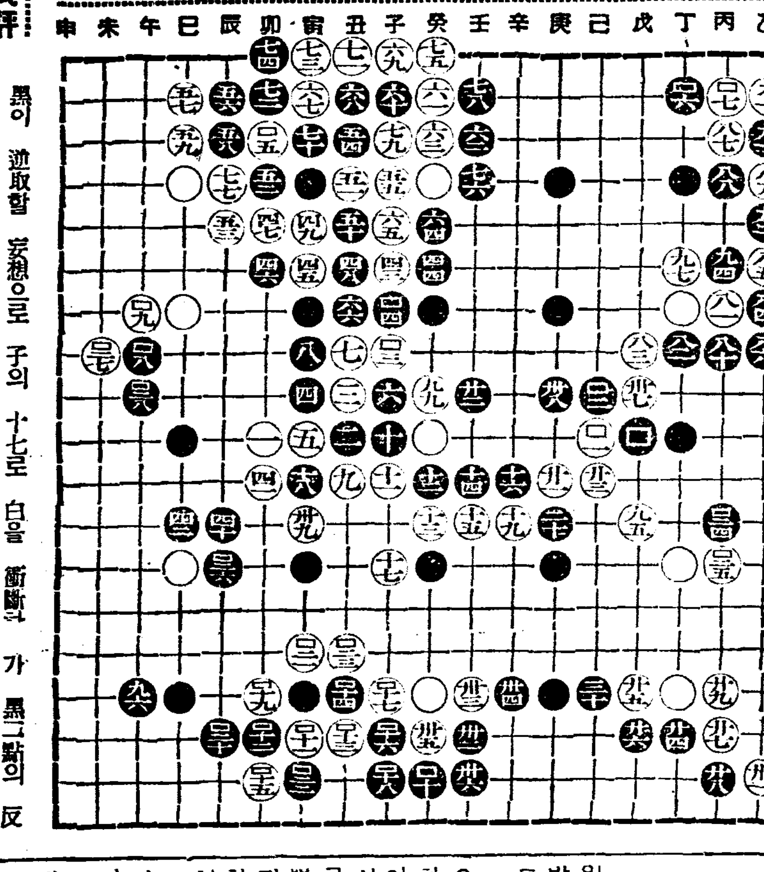
◇午前十一時 京城府民館開館式實況 京城府太平通府民館으로부터—
◇午後〇時五分 映畵이야기 男子의敵 朴應冕
◇同三時一五分 家庭時間 兒童과恐怖 金興濟
◇午後六時 하-모니카合奏 一、五重奏 小夜曲…드리고作曲 二、二重奏 하란도르…비제作曲 三、五重奏 圓舞曲『午前三時』金坡國作曲 四、二重奏 메르시안·댄스…아렌作曲 五、五重奏 戰勝旗아래로…부론作曲
指揮 하-모니카 五重奏團
第一 하-모니카 白應圭
第二 하-모니카 白鎬基
第三 하-모니카 金容虎
第四 하-모니카 黃碩夏
第五 하-모니카 鄭炳翙
◇同六時二五分 經典解說 明倫學院講師 安寅植
◇同七時三〇分 講話 國境警備慰問에對하야 中島錫麟
◇同八時 大岑과伽倻琴併唱 一、短歌 大丈夫 二、唱劇調(가)바타령(나)春香歌中 自嘆歌 大岑 朴鍾基 伽倻琴 金海仙 鼓手 池龍九
◇同八時三〇分(東) 管絃樂 ‖日比谷公會堂으로부터中繼‖ —산사-ㄴ스誕生百年記念演奏會— 交響曲第三番 C短調第一樂章 第一 아다지오 第二樂章 第一 포코·아다지오 第二 알레그로모데라-토 第二 마에스토-조 마그나올강 指揮 新交響樂團 人事 大中寅二 同 山田耕作 惠川賴貞 메르나-피라

曆 十二月十日(火)
十一月建戊子(大)十五日
庚申·木·翼·成
移徙·裁衣·上樑辰時·開市·納財 安葬에宜함
●大雪八日(舊月十三日)
●冬至二十二日(廿八日)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8＝

白 丁奎春
黑六點置 李英鎬

○一二三 丑의十七
●一二四 丑의十六
○一二五 卯의十八
●一二六 子의十七
○一二七 子의十六
●一二八 子의十八
○一二九 卯의十六
●一三〇 辰의十七
○一三一 寅의十五
●一三二 寅의十八
○一三三 丑의十五
●一三四 丙의十二
○一三五 丙의十三
●一三六 辰의十三
○一三七 未의八
●一三八 午의九



◆葉權文氏評

黑이 逆取할 妄想으로 子의 十七로 白을 衝斷한가 黑二點의 反受其害하니 此는 都是逆理所致라 烏可免이리요 이 子의 十七로 撲치말고 辰의 十七로 順延하야 應手를 바든후 抽暇를어더 徐徐進行하야 餘裕가 自在하지니 이로말미아마 理解를하여보면 逆不如順을 尙可知矣리라

短篇小說 惡夢 【八】

咸大勳作 夕影畵

영자는 허둥지둥 자긔도 몰으게 경성역으로 나와버리고 말엇다。안타까히 기다리고 잇는 원철의 환영에 끌렷다고나 할까? 자긔도 몰을의식에서 영자는 경성역 입구로 발길을 드려 노케되엿다

『지금이야 오서요 전차정류장꺼정 나가서 그러케 기둘러두 안오시기에 막 또 일루오길인데요』

원철의 기뻐은 하늘에 다흘듯 그리밉지안케생긴얼골이 갈작이 윤끼가 도는것가텃다

『………』

『저 여긔선 말슴하기 어려운데 잠깐만 풀렛트홈꺼정드려가서요』

『거긴왜요?』

『아-니 교외라두 좀가서서… 저! 신촌이구 양화도 쪽으루』

원철의말소리는 이상히도 떨리엇다

『실허요』

『글세웨그러서요?』

『실다니깐요!말슴하실께 잇스문 여긔서하세요!』

『사람들이봐요 서루 창피하잔허요자 어서 드러가세요!』

『실허요』

『사람들이 본다니깐요 자 시간이 다됏스니 어서 드러가세요』

『글세실타니깐 웨그러세요!』

『그리지말래두 그리시네』

원철은 잡아당길듯이 영자게로 밧삭부러 섯다 그때마츰 라우드스피-커(擴聲器)를 통해서 『룡산 당인리 방면손님타십시오』

하는 말소리가들린다 대합실에 안저잇든 사람들은 모주리일어서서 개찰구쪽으로 열을지어와글와글 나아간다 영자도 구지뿌리치긴 햇서두 사람들이 밀리는결에 어쩔수가업서 그만 개찰구로나가는군중들에 끼이고말엇다

그리크지 안흔 차안에는사람이 빽빽드러차서 조곰도 움직일여지가업다 시게를보니한시십오분…청각이됫는지 재 안기도전에 『삐』소리를 내어 차는 압으로 다름질처간다

영자는 절에간 색시모양으로원철이여메안처 창박그로 눈을보내고만 잇섯다 냉동게딱지 가름집이 날러가는듯 차는속력을 내여 다름질처간다 어느듯 차는 서소문정 정거장을 지낫다 야외풍광이 좌우로 전개된다철로연선에 고요히핀 들국화들이 오고가는사람의 마음을 흔든다 그청조한 우슴속엔 가비야운애수가 어린듯도 으악새의힌이삭이 솜피듯 날엇다。그것은 가을의 로맨틔스트의 하나인듯 처량한 멜로듸가 그대로 날르는것갓다。

영자는 설렌든가슴이 조금진정이 되는것가텃다。아름다운자연이주는 미의 감각은 소연한 세상을 이즐듯도 가슴이 시원하고 머리가 가벼워지는것가텃다。

두사람은 한참동안이나 서로딴생각속에 침묵을 직히고잇는통안 어느듯 차는 압호로 갓다 뒤로 갓다하는동안 당인리역까지 오고말엇다。

『도-진리 도-진리!』

역부의 소리가 놉다。사람들은 쏘다저 나린다 영자도 원철과 나란히 나리엇다

그들은 서북쪽으로뚤린 비탈길을 더듬어 양화도 서양인묘지쪽으로 발길을 옮겻다 맑은 바람이 옷깃을 헤치고 살결에 닷는 촉감은 끗업시 상쾌하다

『자 여긔가 서양인 묘집니다떡 묘지의 기분이 조치요?』

발길을 멈추고 가지각색 비석이선 묘지압헤 서서 원철이가 입을 뗏다。

『청승맛게 묘지엔 웨와요?』무시무시 하다는듯이 영자가 머리를 돌릴때

『자 여길보세요『내가마엽백년을 조선서 더사럿드면 큰일을 햇슬께다!』』

영어로 색인 비석을 스틱으로가르키며 원철은 영자의 얼굴을 치어다본다。

『그인 퍽그나 조선에 애착이잇슨가봐…』

궁구가 아조맘에 드러서 영자도 그비문을 한참이나 드러다봣다。

『그런가부군요…그러치만 한번 이러케 땅속으루 드러가문그만인걸 사람은 부질업시 차우고 울고 고롱하고……』

갑작이 무슨진리나 발견한듯이 원철의 얼골은 처연해진다。

현저히女性間에도 賞用者가增加된
ラランポマード
란 란 도-마-노

齒を白く強くしてムシ齒をつくらぬ
齒磨 クラブ
구 라 부
B-60

學藝

乙亥年의創作決算
朝鮮의作家는어데로?
—轉形期의一作家로서의小感—

② 嚴興燮

今年上半期에잇서서 筆者의 記憶에 남은作家와 作品을 생각나는대로 列擧하면
◇兪鎭午氏作『金講師와T教授』
◇李箕永氏作『元致西』
◇李北鳴氏作『工場街』
◇李無影氏作『山家』
◇朴花城氏作『理髮師』等과 新人으로
◇金裕貞氏作『금따는콩밧』
◇崔仁俊氏作『상두』
◇玄東炎氏作『蔘』
等이엿고 後半期의 作家와 作品으로서는
◇趙碧岩氏의『破鏡』
◇李北鳴氏의『関甫의生活表』
◇李孝石氏의『聖畵』
◇宋影氏의『福順이』
◇朱耀燮氏의『사랑손님과 어머니』
와 新人으로
◇金末峰氏의『苦行』
等이 記憶에 새로우며 以外에도 相當한

『努力』으로 一篇乃至三四篇 以上의 作品을 生産한 作家로서李泰俊 韓仁澤、姜敬愛、白信愛、咸大勳 朴泰遠、李石薰、諸氏와 朴榮濬 金沼葉、李學仁、桂鎔默、姜鷺鄕 朴啓甲、朴松、金祿汀 諸氏가잇스며

詩人이면서 小說을 쓰신분으로 金起林氏와 盧天命氏等이 잇고 評論을쓰시든분으로서 小說을 쓰신분은 咸大勳 朴勝極諸氏가 잇섯스니 이는今年一年間의創作界에 빗초인 한異彩엿다고 볼수잇다

이밧게 新年三新聞

『懸賞』當選作家로서金始鍾、金鄕雲(玄卿駿) 氏等이잇섯다。

張德祚、趙碧岩、兪鎭午諸氏는 겨우一二篇의 寡作을 보여준作家엿스며 筆者의눈에 띄이지안코 다만 一年間을 沈默을지킨作家로서 玄鎭健、趙容萬 金南天、蔡萬植、崔貞熙諸氏가잇스니 이는 今年의 創作界를 爲하야 자못섭섭한 일중의 하나가안일수업다。

新聞小說(長篇)을 쓴作家、또는 쓰고잇는 作家로서 洪命憙、李光洙、朱耀燮、金末峰、朴花城、李無影、李泰俊、沈熏、咸大勳、諸氏가 잇스나 現下 朝鮮情勢에 빗치어 新聞小說을 가지고 文學的價値를 期待하기란 實로 妄想에 갓가운일임으로 여긔에 重言을 避한다。以上에

『列擧』한 作家들中에 各新聞社를 中心으로한 所謂 文壇閥벌에걸려 그創作 發表機關이 거의 制限되다십히 特定된 엇떤 紙面以外에는 執筆하지 안흐며、또한 하지못하는 作家도 잇스니 兪鎭午、李無影、金南天、蔡萬植、上半期에잇서서의 李泰俊 諸氏가바로 그들이엿다

回顧컨댄 上、下半期를通하야 今年一年間에 文壇에動員되여 小說을 쓴作家의總人員數(延人員)는 旣成新進을합하야 거이百餘名을 突破햇고、그들의生産한바小作品數는 近二百餘篇이란 近來드문大書作을 일우고잇다。

이제筆者는 今年一年間의 成果檢討에들어가기前에먼저 以上의

『主要』作家가 그把握하고잇는바 世界觀의 差異로서實로 相反되는 傾向的인作品들이 生産되는例를 規定할가한다

兪鎭午、李北鳴、李無影、朴花城、姜敬愛、趙碧岩 諸氏와 崔仁俊、朴榮濬、金沼葉諸氏가가진 良心的인 社會思想을 內包한所謂傾向的 作風을가진作家群과 李泰俊、朴泰遠、諸氏等과가티 純粹藝術的作風을가진 作家群과 또한 咸大勳、金裕貞、張德祚、諸氏와가티 그 어느便이라고 指定할수업는 中間派的、또는未定的作風을가진 作家群以上의세傾向으로 난울수잇슬것이다。

今年一年間에 잇서서 어느

『傾向』을띈作家群이 가장만흔成果를 남기엿는가를말하기前에 以上에서 말한바 세가지의 傾向을가진 作家群들의 今年一年間에나타난 一般的인 缺陷을 먼저멧가지말하고저한다。

첫재、作家로서堅固한 世界觀이 樹立되지못한것

둘재、朝鮮的特殊性을把握지못한것

셋재、槪念의 使者(創作方法)이란 판에 박은 公式에 사로잡혀 作家各自의 獨自性을 沒殺한것

等이엿다。

그러므로 今年의 作品中에서 世界的 水準을 凌駕할만한 作品이 못나온것은 當然한 일이라고 안할수업다。

要컨댄

『今年』도 亦 作家의 力量問題가 무엇보다 먼저 안흔다。(그러나 筆者는 여기에 한가지 要望코저한다。作家의 力量이란 作家 自身이 創造하는것만은 絶對로 아닌것이다。그作家의 社會的支持와 그作家의 生活保障은 그作家의力量을 發展식혀주는 가장큰 動力이 되다는것을 力說하고십다。그럼으로 作家에게서 優秀한 作品을 期待하기前에 먼저 社會는 作家를支持하고 作家의生活을 保障함으로써 作家의力量을 充分히 發揮식혀야 할것이다)

海西紀行
④ 朴花城

일은아침의 차고 매운바람을 거스려 달리든 自働車는 낫서른 寂寞한 村신작노바닥에나를 나려노코 휑하니 달어나버립니다。

쓸쓸한 전방에서 栗谷先生의 옛집터를 물어보니 老婆가 나와서 손을들어 가라칩니다。老婆의 가라치는 손끗을따라 솔나무가 덥혀잇는 적은山을 너머가니 松山이 뱅-둘러잇는곳에 자그마한 동리가잇고 그중에 古色이 蒼然한 옛기와집한채가 뎅그러케 소사잇는대 그것인즉 栗谷의 後孫인 李氏의 집임에 틀림업습니다。

그러나 내본시 儒學을 공부하는 學徒가아니오 朱子나栗谷을 先覺로서 推尊하는 淸閑한 선비가 아닌以上 古人의遺蹟을 차자 그들의 面影과 德을欽仰할 後輩로서의 道理보다도 九曲의山水를차자 그景致의 絶佳함을 讚揚할 한 길손으로서의 義務가 더크다는것을 느끼는것은 나로서 極히當然한 일이라고 생각하엿습니다。

그럼으로 나는먼저 내눈을번쩍 띄워주는 마주보이는山을향하고 그집압흘지나 나려갓습니다。두어거름을 옴기니 淸凉한바람결에 쇄락한 물소리가들리옵니다。거름을 빨리할사록 물소리도 크게 들리더니 오오내압헤 척 가로 열리는것은 훌륭한 바위와 바위새를 또한 자그마한 돌맹이 돌맹이위를 철철 넘어흘러가는 크고맑은 시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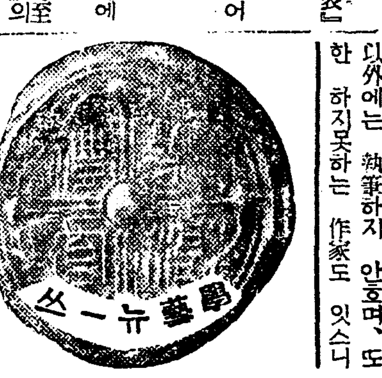
어제밤 나린비에
시내물도 자라구나
솔바람 서늘커늘
물소리 더우차다
이물이 구비처흘러
九曲이 되여다오。

나는 물에 잡기지안흔 돌을 골나밟어서 시내를 건늡니다。흘러오는물은 내가、딋고잇는돌에 부듸처 깨여지며 차디찬물방울의 진주알이 내발등에서 부서집니다。그것을 보는순간 내발은 자리를 헛드듸어 맑은물을 유린하고 말엇습니다。俗人의발이 淸淨를 더럽힌罪로 내구두에는 물이 하나가득이 듭엇습니다。

물을 다 건너와서 오던길을 되돌아보든나는 내신속의 물을 미처 털어내지도 못하고 시내 上流에 秀麗하게 솟아잇는 奇巖怪石의 적은 뫼뿌리에 눈을 때앗겻습니다。

뾰족뾰족하고도 날카롭지 아니하고 빼여낫스면서도 충충히 고여잇서 아슬아슬하게 보이는 各봉오리와 退色은 하엿스나마 아즉도 가을의빗을 잇지안흔 누런입사귀를 가지고 峰의 사이사이에 서잇는 우북한 雜木이 그 아래로 시퍼러케 깔려잇는 물거울속에 그림자를 떨어트려물위와 물속의峰은 놉기가 千丈이나 되는듯합니다。

나는 다시 물을 굽어 봅니다。아즉 해빗을 밧지안흔 이시내는 神秘로운 밤의 애기를 속삭이는채로 열두고비를 꺽거서 고요하게 노래하며 흘러갑니다。



冬宮塔上에 世界第一의큰별

【모스크바】發聯合】『쏘베트』政府는 十一月七日 十月革命第十八週年記念日을際하야 從來『크렘링』宮上에 異彩를 흔날리든露國의裝飾을네리고 鎌과槌와星의所謂『쏘베트』의『심볼』을 据置하엿다。별은 鍍金인바 直徑四米로五米 重量이 九百瓩이며『스데이렌스』鋼鐵의 枠에 달여잇다 이러케큰鍍金은 世界最初라고한다

鎌과槌와星과의 사이에는『우랄』의寶石ㅣ紫水晶 翡翠와 綠玉『롯버ㅣ스』(柘榴石等이 박키엇는대 그總重量은 卄五萬『카랏트』에 達하며意匠設計는『名譽藝術家』『페ㅣ드로프스키ㅣ』氏 指導下에『모스크바』大劇場專屬의 意匠藝術家들의 考案으로『우랄』의 寶石加工所及모스크바의 中央化學研究所共同으로 製作된것이다

新春懸賞文藝作品募集

新人을招請한다!!

應募期限 十二月十五日까지

◇創作小說 四百字原稿紙七十枚以內에쓰시되 글씨를 똑똑히 정하게 쓰십시요
賞金=首席一篇五十圓 次席一篇三十圓

◇戲曲 一幕以上三幕以內의것으로 쓰시되 글씨를 똑똑히 정하게 쓰시요
賞金=首席一篇五十圓 次席 三十圓

◇詩 長短은 隨意로하시고 每人이 數篇式 應募해도 無妨합니다
賞金=首席一篇 十圓 次席一篇 五圓

◇時調 入選者若干人에게 賞金各五圓式 드립니다

◇民謠 入選者若干人에게 賞金各五圓式 드립니다

◇童話 슬픈이야기보다、깁부고 기운날 야기를 쓰십시요 四百字原稿紙二十枚以內
賞金=入選若干篇에 對하야 各篇에十圓式

◇童謠 入選者若干人에게 賞金各五圓式드립

注意
●應募된作品은 入選落選을 勿論하고原稿를 一切返還치안습니다
●보내실때는『朝鮮日報社學藝部新春懸賞文藝係』라고 쓰서야됩니다

朝鮮日報社學藝部 白

쪽·레뷰
바라든 지용詩集
……(三)……

李敭河

그러나 詩人의 觸手는 다만 敍敏하다는말로 모든것을 말하엿다 할수잇슬 觸手가 아니다。그것은 또 모지고 날카롭고 性急하고 안타가운 한個性을가진 觸手다。그것은 對象을 휘여잡거나 어루만지거나 하는觸手가 아니요 언제든지 對象과 맛치이고 부듸기고야 마는觸手다。그리고 맛치이고 부듸기는 것도 銳角과 銳角과의 날카로운 衝突을 보람잇고 반가운 把握이라고 생각하는 觸手요 또 모든것을 一擊에 붓잡지 못하면 滿足하지 아니하는 觸手다 여기 이 觸手가 다다르는곳에 異常이 일어나고 이어 激動이 생긴다。따라 詩人은 이러한때 다만 末梢의 感官뿐아니라 김히 全身 全靈이 휘둘리고 보는 讀者는 이 熾烈하고 아슬아슬한 光景에 거이 眩暈를 느낀다。

白樺수풀 앙당한 속에
季節이 쪼그리고 잇다。

이곳은 肉體업는 寥寂한 饗宴場
이마에 시며드는 香料로운 滋養!

海拔五千피이트 權雲層우에
그싯는 섬냥불!

東海는 푸른 插畫처럼 옴직 안코
누뤼 알이 참벌처럼 옴겨 간다。

戀情은 그림자 마자 벗쟈
산드랏케 얼어라! 귀뜨람이처럼。(七頁)

한 完全한 스케취! 또렷한 鉛筆자죽이 올록 올록 마음에 색이워지는듯한 스켓취다。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同時에 한 아름다운 敍情詩인것을 이저서는 아니된다。왜그러냐하면 우리는 여기 한 風景의 點睛한 스켓취를 볼뿐아니라 귀뜨람이처럼 산드랏케 언 詩人의 마음의 圖式을 볼수잇기대문이다

그러나 詩人의 觸手는 또이와가티 모든 物象을 붓드러 個性化하고야 마는 積極性만은 가진 觸手가 아니라 한편 부닷친 物象의 구석 구석에까지 浸透하야 詩人을 도로혀 그物象에 沒入케하고 同化케하는너그러운 包容性을 가진 觸手다

이리하야 우리는
오리 목아지는
湖水를 감는다。
오리 목아지는
자꼬 간지러워 (六九頁)。

이러한 詩가 잇는것을 알며 또『蘭草닙』이라는 다음詩에 아름다운詩가 잇는것을 알것이다。

蘭草닙은
차라리 水墨色。

蘭草닙에
엇든 안개와 꿈이 오다。

蘭草닙은
한밤에 여는 담은 입술이 잇다。

蘭草닙은
별빗체 눈떳다 돌아 늡다。

蘭草닙은
드러난 팔구비를 어찌지 못한다。

蘭草닙에
적은 바람이 오다。

蘭草닙은
칩다。(一九頁)

氏는 또 말의 秘密을 알고 말을 회잡아 操縱하고 驅使하는데 놀라운 天才를 가진 詩人이다。우리는 우리朝鮮말그가난하고 너그럽지 못한것을 말한다。그러고 事實 이러한 制限이야말로 우리朝鮮詩人의 큰 困難이요 또 한 핸드캡일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우리朝鮮말이 詩人의손에 붓잡힐때 그것은 佛蘭西말가티 아름답고 또 어느나라에 못지아니한 아름다운 音韻과 너그러운 餘韻을 가진것이되여 나라난다。

꼿봉오리 줄등 켜듯한
조고만 산으로—하고 잇슬까요。

솔나무 대나무
다옥한 수풀로—하고 잇슬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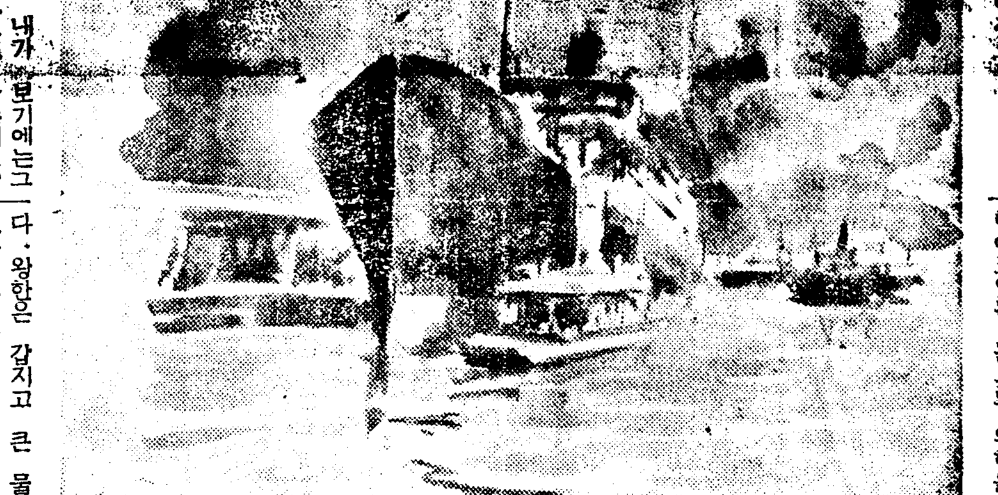
노랑 검정 알롱 달롱한
블랑키트 두르고 쪼그린 호랑이로—하고 잇슬까요。(三七頁)

이에술의 母音의 音樂을 들으라。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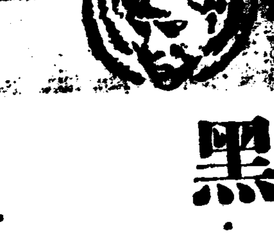
鋪道로 나리는 밤안개에
어깨가 저윽이 무거웁다。

이마에 觸하는 쌍그란 季節의 입술
거리에 燈불이 함폭! 눈물 겹구나。(二七頁)

이에술의 子音의 交響을 들으라。나는 이대술을 읽을때마다 恒常 나의 憂鬱의길 鋪道를 聯想한다。나뿐아니라 엇던 讀者든지 이에술을 바로 읽는다면 반다시 안개 자욱한 이종의거리를 聯想하게 될것이다。안개 자욱한 거리를 聯想하게된다는 것은 勿論 詩人이 안개나리는 鋪道를 말하여주엇기때문이 아니요 세子音 ㅍ ㅁ ㅂ 의配置自體에 자욱한 안개의 暗示가 包含되여 잇기때문이다。



黑風 【195】



韓龍雲 作
金熊超 畵

복수(復讐) 5

[illegible]미도 [illegible]다마는 그것보다도 [illegible] 하고 말[illegible] 염주는 콜난을 새롭은 [illegible] 왕한의 업을 처다[illegible] 「선생님은 [illegible]시군요 저의 [illegible] 파리하얏지오 그[illegible]안허요? 선생님」 하는 [illegible] 눈에는 눈물이 [illegible] 고개를 숙이고 손수건으로 [illegible] 가라 씻는다 그것은 자기가 왕한을 생각[illegible] 괴로웟다는것 [illegible] 하소연하는 동시에 [illegible] 조흔 왕한의 [illegible] 조금도자기를 생각하기에 괴로움을 [illegible] 흔적이 업는것을 [illegible] 하얏다 왕한은 그말을듯기에 거북하고 괴로웟다

「그러면 [illegible]생하신 비해로는 어떠 그다지 상하지 아니하얏습니다」 하고 콜난의 얼굴을 살펴보는 왕한은 다시

「참 [illegible]하다니요 내가 보기에는 그전보다 나으신것 가튼데요」 하야서 콜난을 위로하얏다 두사람은 기다리든 자동차에 올나서 왕한의 려관으로 드러왓다 왕한은 일부러 려관 내실의 조용한방을 치게하야서 콜난으로 하야금 그방에 들게하얏다 콜난은 려관에 드러가든 길로 자기의 행장을 대강 정돈하고 선물로 가지고온 몃가지를 왕한에게 준다 그것은 특별히 만든 겨울 양복 한벌 보석 회중시계 하나 백금으로만든 화병 한쌍 기외의 소소한 것 몃가지엇다

「선생님 이것이 변변치 안치마는 정성으로 가지고 와답니다 갑두게 바다주서요」 하고 그것들을 따로따로 왕한의압헤 띠려노터니 소소한것 몃가지를 다시 손질하야 내어노면서

「이것은 어린애들처럼 이런것을 다 사가지고 왓습니다 이것은 여행하시는데 쓰시라고 풍친이고요 이것은 선생님이 담배를 아니잡수시니까 그대신으로 쓰시라고 약을 넛흔「파이프」고요 이것은 인형이야요 아이들작난감 갓지안허요? 선생님 호호호 그런대요 이것은 본국 상점에서 작난감으로 파는인형이 아니야요 미국에 유명한 조각가가 만드러서 시카고서 열린 만국박람회에 출품하얏든 것인대 특선이、되야서、금패를 바든 것인대 갑시 상당하답니다 또 이것은 여행에 편리한 접엇다 폇다하는 술잔이고요 이것은 회중전등이라 나요 에듸손이라는 사람이 발명한·것이라는대 우리나라에도 이런것이 드러왓는지 모르지오 이것보서요(시우치를 눌러서 불을켜면서) 편리하지 안허요? 이것보서요 이것은 과자갑이야요 이런것을 다 프레센트라고 사가지고 왓서요 선생님 또 어린애들 갓다고 흉보시겟지」

하는 콜난은 느러노앗든것을 다시 거두면서 어린양 하는듯 한애교잇는 눈으로 왕한을 본다・왕한은 갑지고 큰 물건들을 보다 그러한 소소한것들을 사가지고온 콜난의 정곡을 생각할때에 부지불각중 눈물이 핑 도랏다 그리하고 자기가 다른 녀자에게 장가드럿다는 말을어떠케하여야 올흘까 나에게 대하야 저러케 간절한 콜난이가 그것을 안다면 무슨결과를 내일것인가 왕한은 그러케 다정한 선물을 바드면서도 조금도 깃붐을 깨닷지 못하얏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한두가지만 사다주신대도 감사할터인대 이러케 갑진 물건을여러가지를 주시니 도로혀 미안합니다 나는 과연 콜난씨에게 이러한 프레센트를 바들만한 자격이 잇슬는지 모르겟습니다」

왕한은 자기도 아지못하는동안에 우연한 기색과 어혼으로 진정의 한끗을 드러내엇다 그것은 콜난의 간절한사랑이 물건으로 나타날때에 왕한의 양심의 불안이 형색으로 드러난 것이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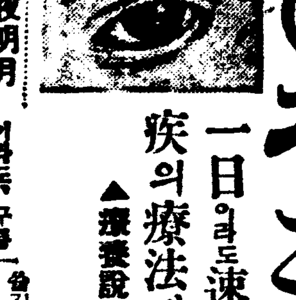
新刊紹介

▲新兒童 第四號 京城府臥龍洞七一 朝鮮日曜 靑協會 新兒童社發行 振替京城一三六五三番 定價十錢

▲事實の朝鮮 十二月號 朝鮮總督府專賣局內 朝鮮專賣協會發行 振替京城二三六六三番 定價二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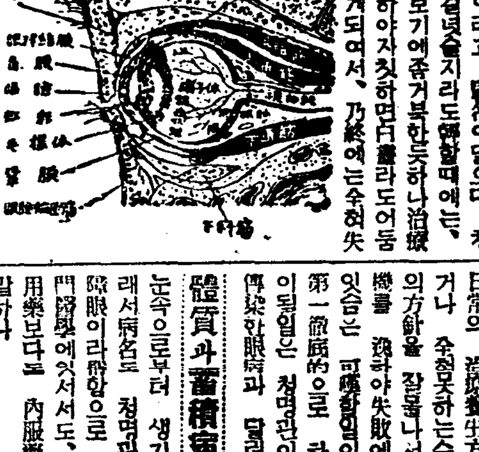
▲世界と我等 十二月號 東京丸ノ內二ノ十二 日本國際協會發行 振替東京五五一八三番 定價

放心하면滿滿



◎청명관이 そこひ目

一日이라도速히諸眼疾의療法에對하야—
▲療養說明書를 無代進呈합니다



十五夜明月 이라도 구름이끼면빗을일흐나、內障眼은 瞳孔中에구름이낀다。그호리는 瞳孔中에 물건이낀데 따라、白內障、綠內障、黑內障이라고 病名이 달으다。청명관에걸녀슬지라도 病勢할때에는、物體를보기에 좃거나 부한듯 잘보지못하야차차하면 어둡게되여서、乃終에는 수히失明되여 此上이暗黑으로되는사람이 지안타、모처럼多大한治療費를

如何한性質의眼疾인가
自己의現在者되나어엿든 청명관이는、元來 그原因과病理를 大略알지못하면 日常의 治療養生方法에도잘못되거나 수천못하는수가잇고또治療時의方針을 잘못하여서緊要한治療時機를 逸하야 失敗에빠지는사람이 잇슴은 可惜한일이다。爲先患者가 第一義的으로 하지안어서는안이될일은 청명관이는外部로부터 傳染한眼病과 달라서自己의 體質과蓄積病毒 때문에 눈속으로부터 생긴眼病이다 그래서病名도 청명관이라하야 內障眼이라稱하오 進步되는眼科專門醫學에잇서서도、內障眼에는外用藥보다도 內服藥이 適當하다고 말하니

眼疾의內服藥 으로 愼重

經濟的으로 治療가便利하고 時間이바쁜사람과、遠隔不便의地方의患者도非常히가볍하며 大概眼病은、治療의 時機가緊要하니、겨울니 해서는 안이되나니、一日이라도速히本劑를試驗하시도록、將來를爲하야 마음으로悲告하나이다。

청명관이되는眼病은 처음에어떠케되는가?
청명관이、其他眼疾의原因과病理의알기쉬운 注意事項 飮食物의可否、攝生法日常의養生治療의注意에이르기까지 親切히소說明書는、公益을爲하야無代進呈中이니、兵庫縣明石市岩屋神社前進光堂本家로 朝鮮日報에서 보앗다明記하야葉書로照會하시라곳全部無料送付함

척수병 脊髓病

一生의後悔업도록 今日곳葉書를

脊骨變形 骨腐敗症 骨節痛 化膿腫症 痲痺 땅기는症 腦의障害 류마지스 神經痛

脊髓가아래로延長하야、背骨의中을 통하야 色氣와가티通하야、知覺神經과運動神經의中樞인脊髓로되여잇는、事物을생각하고判斷하거나하는것은、腦髓의作用이나、뜨거운火箸를주인때、생각할새도업시곳文카나다리가끈그러진瞬間에、넘어지지안으라고하는等敏速한擧動은、脊髓神經의機能인故로、脊髓病에걸니면、陰險可恐할病毒때문에、身體의柱礎인背骨이漸漸굽어서佝僂로되는等、自體의姿勢가부서지는同時에脊髓가病的으로變質되여甚하면썩어서膿이나오고知覺神經과運動神經에、全身的故障을生하야、압흐로淋痺되고暴動이鈍하며、手足도不隨意로되여、往往步行도困難의 지경을비르로되고、腦에도害를끼치어서、腦力의發育을낫부게하며、白痴로되는수도잇스나、이에放心못할脊髓病과、苦生菌昇마치스神經痛에有名한良藥이잇다하야무리大金을써도、當座藥과姑息的治療로는、一時에곳치게할뿐으로언제까지든지、根治안되여病은되리어進行惡化할뿐이니、決心하고、病이되는原因인體內의病毒을全部掃淸치안으면안이되다게을니하지말고、一日을速히適當한療法과良藥을選擇함이緊要하다、鄭聞히하면意外인不具廢疾로되는此病은、年少者에만흠으로特히保護者父兄은勿失好機로록注意하시기바라나이다。

兵庫縣明石市 中町本通太平堂脊髓藥本家로 便紙하되朝鮮日報에서보앗다고明記하야冊子를주십시요、說明書養生法全部無料로送呈합니다

再發의危險을避하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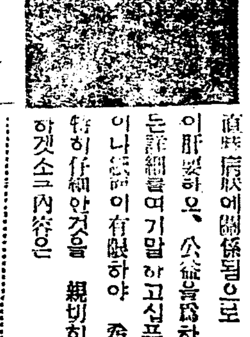
四十歲에걸이는

腦溢血中風 (自宅治療)

動脈硬化、高血壓의解決

㊎

中風症의 한숨
腦溢血中風은한번나어드래도、再發하기쉬운性質의病으로再發하면 바다시、最初보다훨신더重하야저서、再發時에죽는것이오、엇다、生覺하야서全快祝賀까지한분이再發하야서、生命까지 (일허버리는일) 까지往往히잇소。



一家의礎石이사람이 업서지면、家庭은、暗澹하게되야서 財産은 散財되고、親族은悲慘히 도彷徨하게되오。그리하야、한번 中風에걸린분은、普通身體와는달은것을잘生覺하야서、再發치안는 治療法이重要하오。그療養法을하는데도中風에對한注意를들으고、認識不足이되면、헤매고、틀이고하야、도리여害되일까지잇서서、

多大의金 額을使用하야도、無益히되고、回復이안되는後悔하는일이잇소。또日常食物은그맛이아는바와가티成分이틀여서、가운대는 特種의性質을 가지는것이오、로、中風患者에好不好가잇서서、直接病狀에關係됨으로 그選別法이肝要하오、公益을爲하야 모ㅣ든註細를여기말하고십푸나 遺憾이나紙面이有限하야 希望한분에게特히仔細한것을 親切히直接送呈하겟소그內容은

無料送呈=內容
四十歲頃부터 만흔動脈硬化症、高血壓의原因으로일직이알고、또自己가獨自診察法을가르커그豫防、젊어지는法을實際有効的으로 指導하고 더구나 中風의突發을警戒하는 中風血統의人、多血肥滿의中風體質의人、神經質人、酒煙을조와한분、平素머리만히쓰는분에도中風에안걸이는 安全豫防法으로알이고 現在中

風에걸려서잇는분을爲하야는中風에對하야알지안흐면 안되는重要한것을 一一히注意하야 飮食物의 조흔것、납분것을區別하야自宅에서 돈파 時間、손쉽덜게하야 只今까지 만흔同病者와조와하는治療法을 곳되게親切히引導하야快復히할수업는有益한것이오。

希望한분은 明石市東戎町順神堂本家에照會하시면 創製者加古順兵衛氏는明石市에서 表彰한 奇特한人으로 特히中風患者의救濟에熱心으로 今日까지도多數의同病者로부터 深甚한感謝를밧고잇소한번검정한 中風患者라도治驗良法을어더내게되고幸福한活動의몸이되야 長生하여잇는분도적지안흠으로 괜찬는損이오 早速히葉書로朝鮮日報에서보앗다고明記하야서兵庫縣明石市東戎町順神堂本家 에直接照會하시오。

中古

今般鐵道省의 放出로

◎鐵道省拂下品 紺ラシヤ詰襟服 一着卸値 三圓

本品은鐵道省의拂下中古品으로 紺色綿毛織裏付等 加工修理한 堅牢實用品
◎鐵道省拂下品 紺色ネル裏付 冬小倉服(一等品) 上下組 一着卸値 二圓十錢

本品은鐵道省拂下品을改造한純毛總裏付
◎黑紺厚ラシヤオーバ(改造品)(防寒用)純毛(一等品) 一着卸値 四圓五十錢

中古改造防寒用
本品은鐵道省拂下品을改造한純毛總裏付厚地防寒用
◎黑紺ラシヤオーバ(改造品)(防寒用)純毛(一等品) 一着卸値 五圓二十錢

◎中古質流 ラシヤオーバ(改造一等品) 一着卸値 三圓十錢

◎質流中古 羅紗改造半オーバ 一着 二圓八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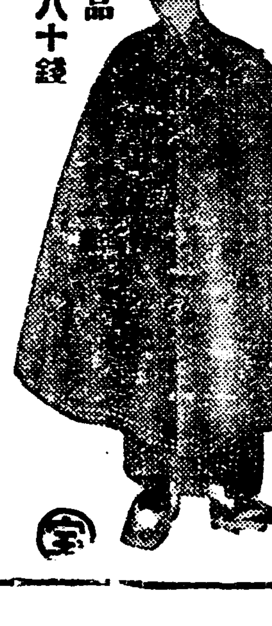
◎黑紺厚ラシヤ防寒用半オーバ 一着 四圓三十錢

◎陸軍拂下品 黑厚ラシヤ防寒外套 並品 一着卸値 二圓十錢

◎陸軍拂下品 茶厚ラシヤ防寒外套 並品 一着卸値 一圓九十錢

◎新品 黑紺メルトントンビ 一着卸値 七圓八十錢

◎質流中古羅紗トンビ 一着卸値 四圓二十錢



◎質流中古品 黑羅紗長マント 一着卸値 四圓五十錢

二等品 二圓八十錢

葉書로 注文하시면一着이라도 小包代引으로送呈

名古屋市東區清水町局前
卸問屋 松山合名會社
電話東大二二九番·振替名古屋一一五二一番 ㊎

粟輸入으로비처본 朝鮮農村의疲弊相

仁川港經由輸入된것만이 比昨年九倍의激增

【仁川】추수곡은 채귀(債鬼)에게 빼앗기여 기름진쌀은내여노코 그대용으로 만주속(滿洲粟)을먹고잇는참상— 이에이천세관을 통과한 좁쌀통계를 본다면 십일월중에 이십륙만삼천삼백사포(價一百九十九萬九千九百五圓)로서 작년동긔삼십마일천이백칠포에비하면 약구배의격증이다 또한 대만미(臺灣米)수입도 십일월중에만 구만삼천사백이십구석으로 작년동긔에비하면 만여석증가를 보이여 과연 조선농업계의몰락을증명하는참사의한토막이라한다

水道使用者 二割九分 保健上問題

【仁川】인천은 경성의관문이니 만큼 방역에로력하고잇스나 가장주목되는바는 인천부민의 음료수문제로 식자간에 가장우려되는바이다 이에부민의 수도사용률을본다면 일본내지인이구할삼부 조선인이 이할구부 외국인이 오할구부로 조선인 사용률이 가장적은형편으로 조선인호수일만삼천사백십팔호에 수도를사용치안는집이 구천사백구십칠호의 참상으로 부민보건상가장 큰문제라한다

年産二百萬圓의 魚市經營權問題

百餘現業者의生活問題라고 結束蹶起、對策講究

【仁川】곡항인천은 정조검사제로 인하야 적지안흔 타격을밧고 잇는일방 이에또한 설상가상으로 수산시장(水産市場)문제로인하야 당업자 백여명이 결속분긔하야 인천 정조검사제 이상의 대문제를 환긔하고잇다 이제그 자세한것을 조사하건대 현재인천여전 수산시장은 갈을 두종류로 나누어 일반 개인현업자들에게 일년계약으로 일반경영에 제공하야 매년염건어 팔십만원 선어(鮮魚)일백오십만원 도합이백삼십만원에 달하야 현어업명을 초과하는 대시장으로 금반 도와부에서는 일부재벌중심으로 어업조합(漁業組合)을조직케한후 경영권을 동조합에일임키로 내정되야 현업자들에게 금년계약만긔인 십이월에 이를 양해시키고자하나 종시듯지 안을뿐아니라 위로금으로 현업자백여명에 대하야 삼만원가량지출하리라 하야 현업자들은 대분긔할뿐아니라 지난팔일은 일요일임에도 불고하고 영정(永井)부윤을 사택으로 방문하야 질문하는등 공긔는 자못험악하야 그해결이 가장 주목되는바로 이는백여 현업자들의 사활문제임으로 또는총독부에까지 진정하야 한사대항하리라한다

冬暖이如春 櫻花滿開

【仁川】 때는엄동이라 말만흔 치위도 일긔만은때듯하다 가지만남엇서야할 나무가지에 물이오르고 꼿송차방울방울웃음먹음어 때아닌 산보객에게 긔이한감상을늣기게하는 월미도(月尾島)남쪽에는 앵화가만발하야 재롱운과한가지 금년의관앵도 두번인가하야 큰이야기써리가되여잇다

有志青年協力 大和夜學設置

【岐陽】평남 강서군 보림면 대화리(江西郡寶林面大和里)에서는 동리 청년리광윤 리충남및李庇鳳씨세청년이 협력하야 대화야학회(大和夜學會)를 개최하야 사십여명이되며 그모든 비용일절을 전부리유남외 세청년이 자담하기로 하엿다는바 일반근방에서는 그청년들의 록지에 칭찬이 자못놉다고 하며 야학회에 활동하는 강사는 다음과갓다

講師 李庇鳳 李炳三 李朋植 李炳一 李基和

咸北의癩患者 十名을輸送

【會寧】전조선내에 잇는 리병(癩病)환자 수천명중에 금번소록도(小鹿島)에 위선 천명 수용소(收容所)를 [illegible] 사업에 리병 [illegible] 영습으로 함경북도에서도 지난 [illegible] 소록도로 [illegible] 명을 모와 [illegible]고한다

알콜이나혼慘劇 親友를亂刺即殺

咸興法院公判에廻附

【咸興】"알콜"로인한살인극— 단천군북두일면 용천리(端川郡北斗日面龍川里)대곡금산(大谷金山)광부정제태(鄭濟泰)(三二)는 지난시월사일동리친구 리용덕(李龍德)의모친입주긔에 참석하여 여러친구들과 술을난흐든중 우연히도 역시전긔대곡금산에서 광부로 종사하는 동료 리응률(李應律)(三一)과 말다툼이생겨서 로 붓잡고 싸우다가 그날은해여젓스나 집에돌아온 전긔정제태(鄭濟泰)는 분함을 참을수업서서 그이튼날새벽다섯시경에다시단도로품고 리응률의집을 습격하여 리응률를 붓잡고 단도로무수란타하여 즉사식히엿든바 즉시 동지경찰서에 피검되여 함흥법원북청지청검사국에 송치되이후 요심심리를 밧다가 전일말에 종결되여 오일살인죄로 함흥법원공판에회부되엿다한다

山間災民救濟로 土木工事를計畫

間接救濟策으로勞賃을散布 咸南道當局連日協議

【咸興】함남도당국에서는 도내산지대오군의 흉작리재민 십여만명의 구제책으로 총독부와도수차 타협을 거듭하고 잇는데 구체적대책안은 아직도 전혀알수업스나 대개는 직접구제(直接救濟)보담도 각종도로 하천 삼림채벌등 저반 토목공사를 시행하여 그로인한 로임산포(勞賃撒布)로서 간접적 구제방법을 행하게될터이라고 하며 내무부장이 련일각관계과장과 협의를 거듭하고잇는 중이라한다

倍以上을執租

牙山서생긴小作爭議 —雙方이맛爭訟—

【牙山】충남 아산군 신창면 신곡리(牙山郡新昌面新谷里)에 주소를둔 강홍섭(姜弘燮)(假名)은 동리 황돈서(黃敦叙)가 소작해오던 토지(畓)삼백삼십륙평을 금년에 매수하야 그작료를 전수확보다도 더강청하야 종전에는 삼백근식을 밧든 도조를 종전의 배로 륙백근을 강청하엿던바 소작인측에서 그를 응치안홈으로 공주지방법원을 통하야 지불명령수속을 제긔한 반면 소작인 황돈서는 전수확이상의 종전보다 배를 강요하는데 견듸다못하야 역시 공주지방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엿다는데 이상과가튼 무리한 지주의 악덕에는 당국에서 여하한 방책으로 조정을할지 일반소작인들은 날카롭게도 주목하고 잇다한다

恩人韓泳鎬氏 記念碑除幕式

【咸興】삼십여년이라는 실로반생동안을 함흥사회 특히 교육사업을 위하야 귀한사재로 륙칠만원식 희사하는등 헌신적노력을 다한 함흥의은인 한영호(韓泳鎬)씨의 공로위로(功勞慰勞)회는 지난이월중에 함흥시내 유지이백여명의 다수회합으로 성대히거행되엿거니와 그후동회비중에서 약백여원가량남은것을긔초로하여 동옹의공적을영원히 긔념하는의미에서 긔념비를 건립하자는 결의를보게되여 수개월전부터 옹의로력으로 설립된 함산유치원(咸山幼稚園)교정에 긔념비의 건립공사를하든바 수일전 준공되엿슴으로 지난칠일오후한시부터 함흥시내 각방면 유지 이백여명과 함산유치원(咸山幼稚園)원아급 숙명녀자학원(淑明女子學院) 생도일동의 회합으로 성대한 긔념비제막식을 거행하엿다한다

自轉車展覽會

【平壤】평양서보안계에서는 십일일 오전열시부터 오후네시까지 동서구내에서 자전거전람회를 개최한다는데 출품점수는 자전거 칠십오대로 전부가 분실품인관계로 자전거분실한사람은 한번와서 자긔의 자전거가 잇지안흔가를 아러보는것이 조켓다한다

『스피―드』反則摘發 犯則者百十一件

保安課自動車監視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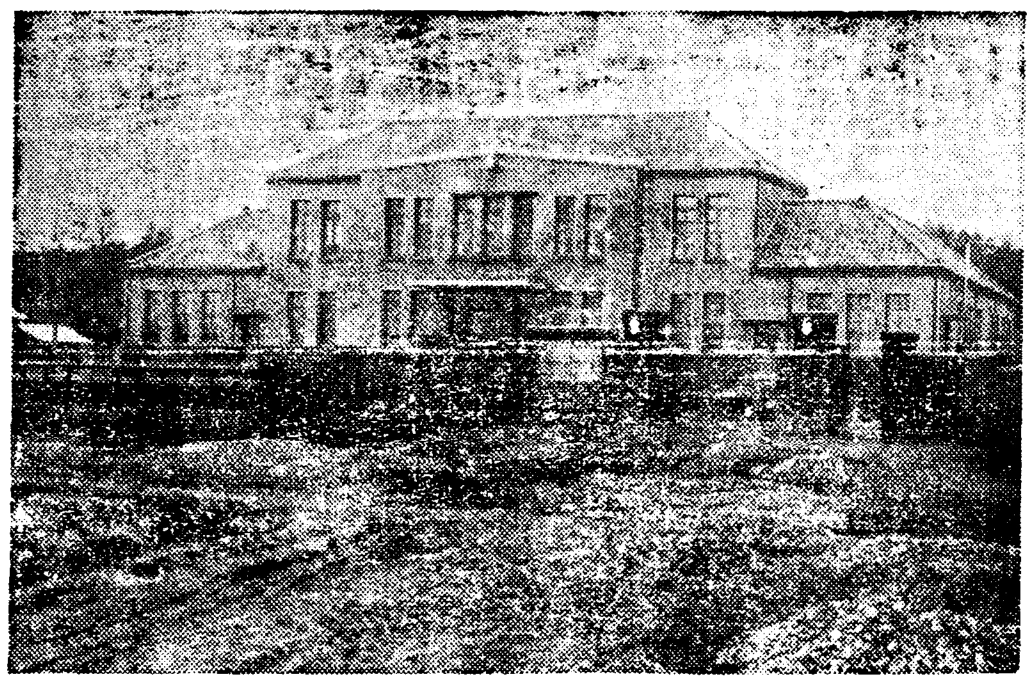
【平壤】평남도보안과에서는 근시세상의 호황과발자맛추어 도내의자동차망도 무수한 형세로 확대되는만큼이라 자동차래왕의 빈번과 『스피―드』의 증진하고 잇는반면에 법률에리면에서 『스피―드』를 리용하는 반측행동이 또한 점차 증가함을 간파하고 반측행위 그것도 가중하거니와 이때문에 무서운 교통사고들이 트키는 직접 간접의 원인을짓고 잇스므로 지난달 이십팔일부터 일주간 전도의 보안과원을 총동원시겨 일제 취체를 극비밀리에 시행한결과 가지각색의 범측행위자 백십일건을 적발하여 엄벌에 처하기로 햇다는바 이런취체는 금후수시로시행하여 반측행동을 엄중감시하기로되엿다한다

警察部員活動 青年一名檢擧

【新泰】지난삼일 오전여섯시 사십분경에 전북도경찰의 양(梁)형사 김제경찰서형사 이인 당지주재소순사일인 사인이 리광덕(李廣德)이란사람의집을 수색하야 가택수색을한결과 서적다수를 압수하고 리광덕을 검거하야 김제경찰서로 호송하야엄중취조중이라는데 내용은 절대비밀에부침으로 자세한것을알수업스나 탐문한바에의하면 사상관계의 사건인듯하다고한다

漣川水防團組織

【漣川】련천에는 우긔의수해를 념려하야 수방책의필요함을 각오하고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중이든바 십이월칠일 오후한시부터 수방단발회식을 거행하엿는데 수방수(水防手)는 륙십명에 달하고 단장에는 상촌중병위(上村重兵衛) 부단장(副團長)에는 박창렬(朴昌烈)강두소삼랑(江頭小三郞)씨로 선정되엿다한다



慶南의棉花共販 千四百萬斤突破

十一月末現在統計

【釜山】경상남도내의 면화공동판매고는 지난 구월이십일부터 십일월말일까지의 총계는 일천사백칠십오만구천일백칠십삼근에 달하야 근년에드문 대량출회로서 예상고인 이천만근 돌파는 확실성이농후하다한다 그리고각군별의 공동판매고는 다음과갓다한다

晋州一、七四八、七一三斤 宜寧一、〇四四、五二九斤 咸安一、〇六九、七六七斤 昌寧一、八一〇、六一五斤 密陽一、七、七三〇斤 梁山三六一、七五六斤 蔚山五八五、六九三斤 東萊四一、六五七斤 金海四九四、九八〇斤 昌原六六七、一三五斤 統營一、一六六五二八斤 固城六四一、一二八八斤 泗川一、〇六三、八三六斤 南海三一八、一三九斤 河東三三〇、三八一斤 山淸三七三、八二一斤 咸陽二五一、〇九一斤 居昌一五〇、六二六斤 陜川七三九、七七三斤 合計一四、七五九、一七三斤

江陵近海서 蔚珍漁船이遭難

四名이行方不明中

【咸興】강원도울진군울진면연지리(蔚珍郡蔚珍面蓮池里) 리성출(李成出)이란사람의 소유 어선복성환(福盛丸)은 지난달 이십사일 오전여덟시경에 청어잡이로 승조원 이십사명을 싣고 동도강릉군 옥계면금진리(江陵郡玉溪面金津里)연안에 출어하엿다가 도중 대폭풍우를만나서 조난 전복되여 승조원중 이십명은 다행히 긔적적으로 지나가든어선의 구조를바더 무사하엿스나 리영혁(李榮革)(三三)등사명은 행방불명이되여 아직까지생사를몰으고잇다는데 묵일함남경찰부에서는 그들의수사를관할각연안경찰서에 수배하엿다는바그씨명은 다음과갓다

蔚珍郡蔚珍面蓮池里 李榮革(三三) 同里 申三六(二九) 同里 李成夫(三三) 同里 金 某(三三)

醫學研究上의珍品 "牛心"의"血栓心臟"

平壤醫專解剖室保管

【平壤】평양의학전문학교에서는 도립의원의 시료환자중에서 사망하면 학생의병리연구를 위하여 해부에부치는것이 정례인데 최근병리학교실에서 해부한 두명의환자 시체중에서 의학상심히 진귀한 두개의심장을 발견하고 귀중한참고재료로만드럿다 한개는 우심(牛心)이라는것으로 심장의비대증인데 중량은 천백여『그람』이나되어 보통사람의 사배이상 오배에달하여 글자그대로 소의심장과가튼것이며 또한가지는 심장 좌심실벽상(左心室壁上)에 혈전(血栓)와가튼 것이 부착하여잇는것으로 이혈전심장(血栓心臟)은 일본의학계의 긔록으로보아도 심히 희소하고 평양의전해부실에서는 처음 발견된것이어서 귀중한 재료를어더하며 깃버하고잇다

新上購組創立

【新上】작년가을부터 배태(胚胎)중에잇든 함남신상구매조합(咸南新上購買組合)은 그후지방유지들의꾸준한 활동으로 점차실현의긔운이놉더니 지난십일월 십일에는 문산공보교(文山公普校)에서 천여명조합원 집합하에 동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운전에대한 제종결의를하엿는데 구수(口數)는 일천사백여구에 달하며 일구금액은 오원이오 제일회불입금은 이원인데 이래간부들은 구금증수에 여념이업드니 금월십일까지는 전부증수될터인바 오는신상시일인 십삼일부터 개업하겟다한다

謹告 本欄揭載小說『異次頓의死』는 作者의 事情에 依하야 約一週日동안 休載함

沙里院法院支廳 新築落成式

【沙里院】해주지방법원 사리원 지청신청사 락성식을 지난팔일오후한시 동청사에서 성대히거행하엿다 동청사는 지난팔월초순에 긔공하야 총공비삼십만[illegible]천여원의 벽돌콩크리트이층에 총건평일백구십여평으로 지난달하순에준공되여 금월일부터 신청사에서 사무를개시하엿다한다

◇……寫眞은 新築한 沙里院法院支廳廳舍

性器强大靈藥 理學士大醫生新劑 淸導補腎丸 二週分 三圓 四週分 五圓五十錢 六週分 八圓 (先金送料自擔) 男子生殖器短小○早漏○遺精○陰萎不能等一般性病에는 理學士大醫生新劑淸導補腎丸이 第一잘듯습니다 服用一二日에早漏防止되고 十日이면 性慾이 빠르게되며 其他特産物等各種販賣 滿洲國安東縣 滿洲郵局私書函第六號 (中興街四〇) 振替口座京城一三〇三八番 滿蒙特産物商會 說明書進呈

婦人病、皮膚病、動脈硬化 神經痛、痔疾、冷症 特許登錄 六一〇ハップ 家庭湯治藥 一浴有効 一日단지五錢으로、一家健康 特約店藥店에잇슴

副業本業 小額의資本으로 專屬製造者急募集 合資會社 千代田商事本店 大阪市西區本田一ノ十八 電話西七三二九八 製品販賣部 大阪市西淀川區海老江下二ノ五三 電話土佐堀四二六六番 支店 名古屋市中區東田町四ノ一九

好職業 無稅港大連經由 各國時計多量入荷 破天荒的廉價提供 新義州初音町二番地 合名會社 三一洋行時計部 商報進呈

男女遠近不問自宅執筆業○勤人學生副業最良○收多無休○照會見本進呈 大阪大軌線生駒停留所前 博文社

●手紙の事なら何んでもわかる 手紙上手は成功の鍵!!! 實用新案 手紙大辭典 大評判の手紙の本 大景品進呈 發賣元 大阪市東淀川區木川町 振替大阪五六〇一四番 現代出版社

此品一枚八十五圓 日常使用してゐる貨幣の中には數百圓する貴重品あり

●强力 男性ホルモン アンドロスチン

●頭痛에苦悶보다 はれやか 하례야가 로서微笑 •30 •50 1•00

爲替管理法에依한 滿洲國取締內容

○…十日부터實施

滿洲國 爲替管理法은 明日(十日)로부터 施行케 되엿는데 이法에 依한 取締는 다음과 갓다 그러고 南滿洲鐵道附屬地에 對하야도 關東局爲替管理令改正令도 同日로부터 施行되야 이亦是 가튼 取締를 하게되엇다

▲國幣의 投機賣買禁止=商取引其他의 實需에 基한것이아니고 國幣市勢의 騰落에 依하야 利益을 어들을 目的으로 한錢鈔、爲替의賣買、即 國幣의 投機賣買는 嚴重히 이것을 禁止함

그러고 金圓、銀票의 投機賣買도 同樣이다(命令第一條)

(一)右에 違反한 者는 三年以下의 有期徒 또는 取引價格의 三倍以下(取引價格의 三倍가 一萬圓보다 少額일때는 一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함

(二)錢鈔爲替의 賣買를 業으로 하는 錢舖、銀行等은 顧客의 投機的 賣買에 應함을 禁함 그業者 알고 이에 應하야 賣買 또는 顧客의 委托을 바든때는 處罰을 受함(命令第四條)

▲外國通貨、外國爲替의 買入及外國送金에 對한 制限(一)國幣對金圓、鈔票의賣買及關東州日本에 向하는 送金은 投機目的에 依하야 한것이아니면 制限을 밧지아니함(命令第二條但書及同條第一號)(二)國幣를 對價로 하는 金圓、鈔票以外의 外國通貨의 買入、關東州 日本以外의 外國에 向하는 爲替의 買入及 此等外國에 送金을 하고저할때는 財政部大臣의 許可를 바더야하며、또 金圓、鈔票를 對價로하는 前記外國通貨、外國爲替의 買入도 同樣이다。

어느部分의 目的에 依하야되는 境遇에는 許可를 바들必要가 업다(命令第二條) 但此等이 左의

(1)貨物을 輸入하고 또는 輸出하기爲하야 必要할때(命令第三條第一號)

(2)外國에 旅行하는者가 旅費를 携帶키爲하야 必要할때(但一個年以內의 旅費에限함)(同條第三號)

(3)外國에잇는 家族에對하야 그生活費를 보내기爲하야 必要할때(但一個年以內의生活費에限함)(同條第三號)

(4)外國에旅行中의者 또는 外國에 滯在中의者에 對하야 旅費、俸給、給料手當、學費其他此에類하는 費用을 送키爲하야 必要할때(同條第四號)

(5)外國에잇는 株主、資本에 對하야 利益의配當을 보내기爲하야 必要할때(同條第二號)

(6)預金 借入金 또는 公社債의 元利金을 外國에잇는 債權者에게 보내기爲하야 必要할때(同條第二號)

(7)官廳의 業務로서 할때또는 官廳의必要에 基하야 하는때(同條第五號)

(8)錢鈔業者、爲替業者가顧客의 需要에依하야 顧客으로부터 外國通貨、外國爲替를買取할때(命令第五條第一號)

(9)錢鈔業者 爲替業者가 顧客의 需要에 應하야 外國通貨 外國爲替를 賣却한 結果 그均衡을取키爲하야 外國通貨 外國爲替를 買入 또는 外國送金을 할때(命令第五條第二號)

(三)錢鈔業者 爲替業者는 顧客이 右(二)에 違反한 事情即 그顧客의 取引이 右列擧의(1)에서(9)까지의 어느것에도 該當치안코 許可를 밧지 아니치못할것을 안때는 이에對하야 賣買에 應치못할것(命令第四條)又는 送金에 應치못할것(命令第四條)(四)右(二)(三)에違反한者는 一、의(一)에述한 處罰을受함(法第五條第一項)

▲現大洋、現小洋、銅平錢等의賣買禁止=現大洋、現小洋、銅平錢等의 銀通貨는 滿洲中央銀行에 賣却하는外에 市中에서 이것을 賣買치못함(命令第六條)右에違反한者는 其品物을 沒收하는外에 一의(一)에 述한 處罰을 受함(法第五條第一項)

▲外國通貨의輸入禁止=財政部大臣의許可를 受치안코는 外國通貨를 輸入치못함(但金圓、鈔票는 例外)本法에서 外國通貨라함은 現大洋、現小洋도 包含으로 此等을 輸入코저하는 者는 財務部大臣의 許可를 밧지안코면안되다(命令第七條)右에 違反한者는 其品物을 沒收하는外에 一、의(一)에 述한 處罰을受함(法第五條第一項)

—(續)—

產組金融難은 機構不完全으로

◇…中間商人의營業을함으로 融資를至極危險視

產組의金融問題는 過般의 產業課長會議에서도 重要問題로되야 各道側에서 產組振興은金融難의克服에 잇다고 主張되엿는데 이에對하야 金組側의主張으로서 產業組合의 機構不完全을 指摘하엿다

現在의 產業組合經營에는 危險이 만코 貸出의對象으로 安全치안타 가령 現在米穀의販賣를 하고잇스나 이것은 特產者로부터 時價로 買取하고 이것을 精米業 米商에 販賣하는等 宛然히 中間商人으로서의 營業을 하고잇다 만약米價가暴落할境遇에는 그融資는危機에 逢着케되야 產組의經營上 이런買收方法은 매우危險이라고 말할수잇다 그래서 融資는 危險한것으로 이에對한 一例를 들면 產業組合이 委託販賣統制의 形式으로 農民으로부터 內渡에 依하야 現物을 引受하고 이것을 販賣의 形式을 採하면 融資한 便도 安心케될것이다 要컨대 產組의 金融難은 機構의 不完全으로 因한것이다

不動產融資受入 明春頃의豫想

朝鮮不動產融資轉貸利資金 第四回分百萬圓은 今年度末受入키로되바 銀行側의 擔當物의提出이 업고 또 各銀行이 모두金利關係로 빨리受入치안흠으로 그受入은 明春으로될모양이라고한다

米運賃引上

交涉을繼續

朝鮮米運賃은 旣報와가티 傭船界의 軟化其他事情으로 當分現狀維持키로되엇스나 今回近海郵船의 代表者林氏가 各船會社의 委囑을 受하야 荷主와 交涉하고 引上의初志貫徹에 努力키로되엇다 그러나 値上의早急實現은 困難視되고잇다한다

京城倉庫在貨 前月보다減少

【京城手形交換所調查】京城府內六營業倉庫의十一月中貨物出入狀況은

	個數	金額
今月入庫	[illegible]	[illegible]
今月出庫	[illegible]	[illegible]
月末現在	[illegible]	[illegible]

으로前月末에 比하야 三百七十五個增加 二十七萬四千七百四圓의減少이엇다

遲米卅萬石輸入

水飴、糊等의原料로 ◇…農林省에서許可

農林省에서는 今般 水飴及糊의原料로 遲羅碎米 三十萬石(國內輸入을 許可하야 그一部 八萬石을 京都染業組合에 輸入許可를 하엿다는바 一石價는 七圓乃至八圓가량이라 關稅를合하야 하엿다는바 從來 遲羅米는 日本內地에 糊의原料로 少量輸入되는데이와가티 水飴의原料로 比較的多量輸入을보기도 米穀統制가實施된以來처음일이며 이로因하야 高價原料를 使用하는 朝鮮內水飴業者는 大打擊을보게되엇슴으로 遲羅品朝鮮輸入을 總督府에陳情하엿다한다 이에對하야 農林省에서는 業者의 意見을聽取하야 農林省과妥協을 交涉中이라한다

朝鮮에도輸入 水飴業者陳情

別項과가튼 遲羅米輸入에 잇서 朝鮮의 水飴業者에게는 均霑되지못하야 朝鮮內水飴業者로부터 遲羅米의 日本內地同樣輸入許可를 殖產局에 陳情하엿다고한다

京濱向米運賃 目下交涉進行

京濱西朝鮮間의 朝鮮米運賃改訂(引上)交涉은 船會社側의 步調가 一致치못하야 一時停頓으로 觀測되는데 實際는 아즉도 隨時京濱移入商組合과 交涉을 繼續하고 그交涉의一切를 林近海郵船取締役에게 一任하엿슴으로 아즉 決裂되지안코 交涉은 進行될모양이라고한다

對外爲替市況

【東京九日電話聯合】

▲東京爲替

對米	賣	二十八弗十六分[illegible]
	買	二十八弗十六分[illegible]
對英	賣	一志二片卅二分[illegible]
	買	一志二片三十二分[illegible]

▲大阪爲替

對米	賣	二十八弗十六分三
	買	二十八弗[illegible]
對英	賣	一志二片卅二分一
	買	一志二片

外油側態度 繼續의强硬

貯油實施延期라도

【東京電話聯合】商工省에서는十月一日부터 實施될 六個月貯油義務의期日을 明年六月末까지 延期하고 明年度豫算에 石油貯油義務에對한 國庫補償으로 二百七十萬圓을 計上하야 過般의豫算閣議에서 그決定이 되엇슴으로 貯油問題에關한 懸案인 二錢五厘値上其他를 一括하야 今月十七日 石油業委員會를 召集報告兼諒解를 求키로되바 貯油義務에 對하야 스탄다-드、라이징선兩外油트라스트의 動向이 아즉 判明되지안코 同委員會에서는 이點이相當히 論議될것으로 觀測한다 卽中島、松本兩商相을 비롯하야 町田商相의 言明은 貯油義務를 理由로하는 깨소링値上은 決코 안할것이라고 하나 事實過般의 二錢五厘値上은 貯油義務를 包含한것이 明白하엿다 그래서 關西方面 自動車業界에잇서서 空前總停車爭議를 惹起하고 또 貯油義務實施는 延期하야 國庫補償은 明年度豫算에 編入하엿슴을 不拘하고 外油側의 態度는 依然强硬함으로 商工省當局이 數次 貯油問題에對하야 回答을 求하엿다 何等意思表示가업는 狀態임으로 政府側은 委員會席上 外油는 六個月貯油를 確實히 實行하자고 言明치안코 다만 目下折衝中이라고할수밧게 업스며 當然國庫補償의 財源으로된 石油關稅引上問題로 委員側은 當局으로부터 言質를어드라고 深刻이追及할것이라고한다

北朝鮮의 製油豆粕

明年製造豫定量

三井系北朝鮮製油에서는 滿洲大豆도 多少入荷함으로休止中의豆粕製造를開始케되야 十五日頃부터 日產二千枚의能力으로 操業하고 明春부터日產三千五百枚의 能力으로操業을 繼續할터이라고한다

夏秋蠶被害

八萬二百八十九枚

今年度夏秋蠶의 不良蠶作狀況을 調查하면 不良作發生은 平南咸南咸北의 三高原道를 빼이고 九道에 發生하야 被害戶數十一萬九百九十六戶、掃立枚數八萬二百八十九枚에 達하고 總豫想二割六分에 達한被害로 그中慶北은 가장深刻하야 一萬七千五百八十枚의 被害가 잇섯는데 이蠶種은 모두水原蠶絲部系統의 新品種인

一、國蠶日 七×國蠶支一〇六
二、國蠶歐 一八×國蠶支一〇六
三、國蠶支一〇六×國蠶支一〇一

의三種으로 그被害發生原因은特殊事情인 旱害、冷溫으로 因한桑葉의 不良과桑葉의 中毒、軟化病發生이 原因되는데 此等의 三品種은 그抵抗性이 弱한때문이다 그러고各道狀況은 다음과갓다

	不良作戶數	同枚數
京畿	[illegible]	[illegible]
忠北	[illegible]	[illegible]
忠南	[illegible]	[illegible]
全北	[illegible]	[illegible]
全南	[illegible]	[illegible]
慶北	[illegible]	[illegible]
慶南	[illegible]	[illegible]
平北	[illegible]	[illegible]
江原	[illegible]	[illegible]
合計	一一〇、九九六	八〇、二八九

今年度公定米價

最高卅二圓七十錢? 最低도現行以上高價

米穀統制法의 新公定價格은 新格差가決定되어 米穀生產費調查의完了를기대릴뿐인바 日銀調查의 十一月物價指數가 一九三·六으로 發表되어 物價參酌價는本格的으로 決定되엇다。

即明治三十三年의 基準米價十一圓九十一錢과 米價率搊勢値一、一九·八及十一月의 物價指數로써規定대로 算出하면 物價參酌値가 新格差率勢米價는 二十七圓二十三錢이되어 前年度보다 二圓三十五錢高로된다。

그리고 標準最高價格을決定할 그上値二割은 三十二圓六十八錢 同三割은 三十五圓四十錢임으로 最高價格은 家計米價를 新採用치안는限 此間에서 決定될것이다。家計米價는 依然算定困難으로 適用되지안흘形勢임으로 이 價格이 決定的數字로 現行價格보다 一圓二十錢高인三十二圓七十錢이 新最高價格이되겟고 最低價格은 米穀參酌値의 下値一割이 二十四圓五十一錢 同二割이 二十一圓七十八錢임으로 此間의 價格과 新生產費及貨運諸費用等을보아 決定할터인데 最高價格에比하야 政治的考慮의餘地가만타。畢竟은 新生產費의決定을 待하여야 判明될것인데 現在의最高最低의 値幅七圓二十錢을多少擴充하드래도 最高價格의昂騰에伴하야 現行二十四圓三十錢보다는 高價가必至이겟다。

新格差를決定

【農林省發表】米穀統制法에 依한 今年十二月에定할 公定價格의 格差中重要한것은 如左하다。

○大阪標準米一石

▲二等合標準으로함 境遇의 等級格上 一等三十錢

▲銘柄間格差 二等九十錢格上

▲二等合標準으로함 境遇의 等級格下 三等四十錢、四等一圓

商況(九日)

株式 鍾新暴騰 好勢

前場區區 休日을지난 今朝場은 軍縮會議形勢觀望으로 買氣不振하야 東新이 百七十二圓八十錢에까지 떠러지는等 不勢이다가 結局再昨後引에 比하야 東新二十錢低인 百七十三圓四十錢 大新四十錢高인 百一圓三十錢 鍾新八十錢高인 百五十九圓三十錢 朝新十錢低인 三十一圓六十錢에 各區區大引되고 日產七十二圓四十錢 日鋒五十九圓五十錢이잇섯다。

後場鍾新高 後場은 鍾新이 百六十圓 關門을 突破하야 百六十二圓八十錢에 暴騰되엇는데 東新、日產等 保合寄後 東新도 百七十五圓臺로 昴高이엇다

一難去又一難 北中問題解決 軍縮會議重視

北中問題는 갈팡질팡하야 好惡材料로서 作用하더니 結局 七日에 北中政權의名稱을 冀察行政委員會로 內定하야 이에北中問題는 完全解決되고 華北自治를 國民政府에서 正式決定하야 自治政權은 日本과 絕對親善케되엇스니 年末을 압두고 市勢一方 東新三十圓高음은 當然하겟스나 九日에 開會되는 海軍軍縮會議는 武力平和精神으로 協定成立은 期待할수업고 日本의 主張에 對立하야 英米提携機運이 濃厚함으로 風雨難測인 만큼 今前場은 北中問題解決에 不拘코 氣迷不振이엇다 鍾新은 拂込期待의 買煽으로百

實物株前場取引

▲朝日 二·〇 ▲京南鐵道 六六·〇 ▲鹽水港糖 五七·五 ▲同新 一四四·五 ▲日滿아루미 三〇·〇 ▲王子製紙 六六·〇 ▲東拓 三七·〇 ▲片倉製絲 一〇三·〇 (取引高一八〇枚)

大株大納會廿七日

大阪株式取引所의 大納會는 本年二十八日 前場限이엇스나 七日組合委員會에서 一日繰上하야 二十七日前場 大納會立會를 行키로 決定하얏다。

▲藤本도京城進出 【門司電話豫通】山一證券의京城支店設置에 刺戟되어 日本內地證券界의 巨頭인藤本삘부로카도朝鮮內進出의 食指를 動하야過日同店門司支店支配人 福田千里氏가 朝鮮에가서 業界를視察한結果 明春初에 支店을設置키로되겟고 今月中에 大阪에가서重役會에서 審議한後最後的決定을 볼模樣이라한다

期米 細刻裡에 少堅

前場小戾 再昨後場 阪地三十圓七十六錢止와共히 二十八圓七十三錢에 場을止한 當市場은 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三十圓八十錢인 四高를操하고 二十八圓七十六錢 [illegible] 十九錢인 九丁한後 阪地突高를接하야 依然伸悩狀態로 [illegible] 阪地七十八錢에 止한 結局 八十三 [illegible] 七十二錢으로 七十七錢에 場을止하엿다

後場保合 後場은 二十八圓七十七錢에 同値始後 七十六錢三本同値로 八十錢에止場하다

依然保勢而已 分歧는明年?

新米의出廻期인 十一月을지나서 十二月에入하엿슴에도 賣物成金의市勢는 毫無하고 도리어動搖反撥의形勢로 因而保勢遲延을 빠이다 要하면 產地農家는 政府로서 本年內에買上實施하지 안는다하더라도 結局은實行하고 말리라하야 絕對賣惜方針을固守하는한편으로 米價의低落을 防止하기爲하야 平均賣을하는 態임으로 容易히 低落을 許하지안흘 모양이오 그反映으로는 地方農家가 아무리賣惜한다지라도 中農以下의賣物은 끈임업시現出할모양이며 또는 本年內에買上이 實施되지안흘을 鑛한 買上이 發表되어든 政府米買方의 失望的賣物도 업지아니하야 無慮히 上放하지도 못한다 하기外에는 此邊에서 年末大納會에 入하기까지 保勢를 繼續할것갓다

市場六感

株 北中問題는 結局 日本의 마음대로되어 政權이 樹立되엇스나 一難去又一難格으로 軍縮會議開幕日이라 日本의不利한情勢를 먼저 걱정하야 北中問題로因한 爆發을抑制한모양▲軍縮會議까지 脫退한 日本이라 軍縮會議를 悅望할것이업스니 오늘抑壓되엇던 買氣가 年內반드시 爆發을 招코말것이라는것이 强氣의主張▲北中問題는 이미今日이잇슬것을 미리樂觀하고 東新이百八十圓近處까지갓던것이 아니냐? 軍縮會議形勢 議會解散 政局不安等

米 今朝政地는 二節三十圓八十錢으로 昨止値에比하면 十三丁이나反高 그러나 當地는 七十錢臺에서 終始 ▲當分何等의强辦材料가업는 만큼 全혀仕手의 關係로 一張一弛할뿐 ▲要하면 今年內에는 何等의 波瀾이업을뜻한걸 地方農家의 態度로보아서 ▲今年內에 政府米의 買上이 實施되지안흐면 더 上伸되지못하고 萬人待望의 큰市勢는 結局失望에 歸코 揉合反落程 越年하리라는것이 弱氣論▲强弱區區한中六感子 文字그대로의 跛行商情을보고 良質買、惡質賣의嚴選時代임을 말할뿐 다른말을 그만두고저한다 다 할지라도 結局은 實行하고야말리라하야 依然賣惜그러나 冷靜히 一考를 要하면 農家가 아무리賣惜한다할지도 永久히 死藏할理 萬無함으로 今年如히 減穀期에入하면 反落을 告하지안흘가한다▲越年後 實收發表가又復減收되다할지라도 古米의拂下가 또한업지아니함으로 此亦考慮할問題▲何如間 市勢란大體人氣에背馳되는것이 原則이라할수잇슴으로 一般的으로 强化된人氣의 그대로市勢가 昻騰할지가疑問▲그러치만 明年度의 米價昻騰은 否定할수업는 만큼찰아리 押目買가 得策일모양

朝取大株主異變

朝鮮取引所의 從來 大株主는 金鍾翊氏(全南)의 八千二百株이엇스나 同氏의持株는 三千四百株로減少하고 劉基英氏(安東)의五千六百九十株도 七十株로減少되엇스며 天日光一氏 三千六百五十七株가 筆頭로되엇다 株主總數는 今期末 一千三百九十八人으로 前期末보다 七名減少이다

鍾新開門突破

鍾新은 今前場百五十九圓三十錢으로後場에 百六十圓關門을 突破하야 [illegible] 鍾新은 百六十圓關門突破는 「拂込徵收後도 二割五分配當은 踏襲할터로 生絲、人絹其他 積極的進出、北中提携工作에 이 第一有利케되고 또現實問題로서 舊株가 二百二十八圓으로 五分四厘利廻、新株가百五十七圓으로 三分九厘利廻로서 親權의 七拂半을買하고잇는데 十二圓五十錢拂込이면 百八十圓까지買하야도 五分二厘利廻로 그것이採算範內라」고말하고잇다한다。

結局年末高?

六十圓臺內退、日產은 還戶의强調、大新은 長期合作好感에 依하야 堅調이엇스나 東新은도리어軟調로서 區區이엇는데 一難去又一難格이엇다。

시세라는 東新은 단단한것이다 百七十圓이 깨어지고도 崩落되지안코 百七十三、四圓臺로 다맛치 전번百六十圓臺에서 二個月間保合하야엇슴때 當然一躍이豫期되엇섯슴에 不拘코 上放되엇든것과가티 이번百七十圓臺에서 二十日間保合코도 崩壞치안흐니 應當 唱出될것이 아니냐? 百七十圓割時不崩이엇스니 百七十圓이되면 實方이 장확빠上할것이아닐가? 北中問題解決로 今前場은반드시 爆發되어야 할것이 軍縮會議念慮로 無聽이 어떠만콤 結局은 中旬末或下旬初에 年末掉尾大爆發이 數三日동안 白熱的活躍을 演코말것이라는 觀測이잇섯다。

經濟界消息

○產組十週年大會明年度開催=產業組合의 十週年記念大會開催에 對하야는 產業課長會議後協議된結果 明年十月 京城에서 組合大會를 열고 이것을 機會로 다음과가튼 案件을 行키로決定하엿다고

(一)優良組合及功勞者表彰(二)即賣展覽會開催 (三)全朝鮮協議會를開催

○貯銀新舘九日開業=朝鮮貯蓄銀行은 九日부터 新舘에서 開業하엿다

○朝鮮電力重役會=朝鮮電力會社에서는 九日 副社長內藤熊喜氏가 入京하엿슴으로 이것을機會로 臨時重役會를 열고 寧越火力發電所의 發電設備其他諸工事上의 問題에對하야 協議키로 되엿다고

○東拓元山支店長後任渡邊浩哉氏=東拓에서는 元山支店長 平山良吉氏가 東拓鑛業常務로 轉出하야 그後任을 物色中이더니 現貸付課勤務의 渡邊浩哉氏로 內定하엿다고

○洋服百貨店=朴淳炳氏經營의 通洞一五七番地 洋服百貨店은 店舖를洋館三層으로 新築擴張하야 八日落成式을擧行하엿고 十日부터 開業한다고한다

窒素肥料內部改造

窒素肥料販賣會社는 從來三菱、安宅兩會社及 阪神의有力肥料商의 株主이엇스나 이번에는 日本窒素가 이에 資本的으로 參加케되야 三菱、安宅에서 各一萬株의讓渡를 밧고 株主가되야 이것을 機會로 重役陣容의 一部를 다음과가티 改造하엿다

取締役社長	安宅 武
專務取締役	岡崎 康一
取締役	吉川 貢
同	矢鋒 一男
同	風間武三郎
監查役	後藤 吉也
同	時安 一郎

今日財界(九日)

◆米 (單位錢)

仁川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白三等米 一石	[illegible]
正租(仁川) 上	[illegible]
一斤價 下	[illegible]

◆市中金融◆ [illegible]

◆株 (單位錢)

東新	[illegible]
日產	[illegible]
大阪株新	[illegible]
大阪纖活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高 無	[illegible]

全혀仕手關係 一張一弛할뿐

朝鮮米의 本年作況은 昨年보다 增收를 告하엿슴으로 足히悲觀할것이업스나 日本內地 米作이 二個年續凶作으로 前途供給의 不安이업지아니 함으로 누구나 明年度의 米價騰貴를 豫期하고 잇다 그러나 農家의 賣物이例年보다 稀薄하다고 할지라도 換金的의賣物이 업지아니하야 驟然中實勢威壓을 加하게됨으로 當分高價를許하지안코 全혀仕手關係로 一張一弛할뿐이다 果然越年後의 大勢가 一般의 觀測과 如히 昻騰을 告하게될지 一考를 要하면 昨今 思惑側으로부터 正米의 入庫함을보면 就中에는 明年度의 渡米用으로 準備하는觀도 업지아니함으로 越年後 減穀期에 入하야 本年과 如히 渡米의 威壓을 加하게될지도 亦未知이며 其時에는 農家의 絕對的賣物도 업지아니할것임으로 今日의 頑强은 後日反落의 前提가 아닐가한다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illegible]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三ノ二
電話長九一六 六九三 一二六五

各地正米

京城弱含 各地의 鉅狀으로 買氣不立이오 定期不勢로 氣配弱하인 丸仁三等 二十八圓二十五錢 四等二十七圓九十五錢 一等白米二十圓五十錢

仁川小落 賣買共히 傍觀하야 取引皆無이나 產地가 下遊하는만큼 市況이 弱保合인 丸仁三等 二十八圓二十五錢 四等二十七圓九十五錢 一等白米十一圓七十錢

釜山好況 定期 不透明政策失望人氣로 產地의 氣勢가 急히引級하야 年末換金的의 賣物이 需來되는 一方으래동안 買落落는側과 定期側의 買拾으로 一、二十錢低로 取引이잇서오래간만의 活況을 呈한 角フ三等 二十八圓五十錢 四等二十八圓丁 一等白米十一圓八十八錢

大邱鈍重 休日後이나 定期伸悩로 市場은 判然한 소리가업고 市勢는 繼續하야 鈍重 不改로 氣配十錢低인 解フ三等二十八圓十錢 四等二十七圓八十錢 一等白米十一圓二十錢

群山續落 日本內地 糯米에 壓迫되어 實行不振인데다가 定期伸悩을 移하야 漸低를 不改하고 十錢續落의 不勢인 變ク三等二十八圓四十錢 四等二十八圓二十錢 一等白米十二圓六十錢

木浦下遊 歲末을 압두고잇는만큼 市中出廻가 相當히 豐富하나 所持側의 賣腰 依然强硬하므로 顯著한 取引이 안되고 市場 保合의 下支로 丸ホ三等二十八圓七十錢 四等二十八圓四十錢 一等白米十二圓八十錢

買賣 分析 金白銀金
金城商會
代金引換販賣取扱(送料先金) 地方注文
京城府光化門通二丁目二十二番地
電話光化門二三九七番

朝鮮取引所證券取引員
아세아證券株式會社
京城府大門通二ノ一 日生ビル一・二號室
電話本(2)(代表) [illegible]
實業의內容아세아日報進星

金融(九日)

◆海外經濟◆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米穀(九日)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大豆◆ [illegible]

商品(九日)

◆京城綿糸布市勢◆ [illegible]
◆京城綿布◆ [illegible]
◆日本爹粉市勢◆ [illegible]
◆大阪三品◆ [illegible]
◆大阪新期◆ [illegible]
◆鰊粕冲價◆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滿洲藥◆ [illegible]

玉蜀黍購入
五圓貳拾五錢也(正味百斤付)
大同江驛着上等麻袋一枚共
右價格으로各地取扱店及平南各產業組合經由多量買入합니다
平壤府船橋里(大同江驛前)
日本穀產工業株式會社

株式(九日)

◆朝取短期◆ [illegible]
◆實定代引日步◆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大阪長期取組◆ [illegible]

期米(九日)

◆朝取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朝鮮內各地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大阪市中正米◆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商品(九日)

◆各地正租市勢◆(單位錢) [illegible]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綿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